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17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29 1982년 9월 16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September 16,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헐리웃출신 모나코 왕비 비극적 최후

그레이스·켈리 사망 (향년 52세)

몰고가던 차 굴러 뇌일혈, 딸은 경상

현대판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못되었다.

왕년의 헐리웃 수퍼·스타 그레이스·켈리이자 모나코의 그레이스왕비는 13일 왕궁으로 돌아가는 도중 직접 운전하던 차가 14m 낭떨어지로 굴러 심한 부상을 입고 14일 병원에서 숨졌다. 향년 52세.

13일자 모나코발 외신은 그레이스 왕비가 막내딸 스테파니(17)양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좁은 커브 언덕길에서 굴러 차는 불에 붙었고 왕비는 다리, 갈비뼈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밤새 그레이스 왕비의 상태는 점차 악화, 14일 하오 4시20분(현지시간) 왕궁대변인은 그레이스왕비가 뇌출혈로 숨졌다는 충격적 소식을 전했다.

부군 라이니에공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충격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스테파니양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제일 처음 목격한 62세의 한 주민은 불길에 싸인 차에서 우선 스테파니양을 끌어낸뒤 긴급구조를 요청, 운전석에 끼어있는 왕비를 구해냈다고 말했다.

냉철하고 우아하며 귀족적인 품위를 잃지 않은 「대표적인 미국미녀」인 그레이스·켈리는 7년간 『상류사회(High Society)』를 비롯한 11개의 영화작품에 출연한 뒤 26세이던 56년 모나코의 라이니에공과 결혼, 은막계와 작별했다.

54년 작품 『시골처녀(Country Girl)』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이외에 『14시간』, 『모감보』, 『백조』, 『하이·눈』등 11개의 작품에서 게리·쿠퍼, 제임스·스튜어트, 클락·게이블, 프랭크·시나트라등과 공연했다.

필라델피아의 벽돌공 출신 백만장자를 아버지로둔 금발의 그레이스는 천성적인 미모에 감추어진 재능, 깔끔한 성품으로 헐리웃출신 여배우로는 가장 신화적인 일생을 누리는듯했다.

26년간 결혼생활동안 캐롤라인, 스테파니등 두 딸과 아들 알버트를 두었고 그녀가 언젠가 다시 영화계로 컴백하리라는 끈질긴 억측에도 불구 숨지기까지 가끔 시낭독회에 나오거나 20세기 폭스영화제작회사 이사로 일하는 이외에 영화에 출연하지는 않았었다.

영화계를 떠난 후에도 그녀는 77년 영화 『전환점(Truning Point)』에 주연으로 교섭을 받는등 그의 인기는 계속됐다.

그녀는 큰딸 캐롤라인이 프랑스의 유명한 플레이보이와 결혼, 3년만에 별거로 들어간데 대해 고통을 받아왔던 그녀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캐롤라인이 18살때까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하다 여겨질 정도로 목을 졸라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었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나는 재미있고 훌륭한(interesting and wonderful) 인생을 살아왔으며 자기의 이러한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온 탓이라 믿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레이스 왕비가 막내인 딸 스테파니와 한 파티에서 미소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이로부터 두달뒤 자동차사고로 생사를 달리한 것이다.

◆4년전 큰딸 캐롤라인(아래 왼쪽)이 결혼하기전 찍은 가족사진. 왼쪽으로부터 알버트왕자, 스테파니, 라이니에 공자와 그레이스왕비.

◆영화「시골처녀」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할때의 그레이스·캘리 말론·브란도가 축하의 키스를 해주고 있다

레바논대통령 당선자 게이마엘 폭발로 피살

레바논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셔·게마이엘(34)씨가 14일 동베이루트에 소재한 팔랑헤당본부 건물에서 일어난 대규모 폭탄폭발사고로 사망했다고 정통한 관변소식통이 14일밤 말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다.

팔랑헤당소식통에 의하면 이날 레바논수도의 크리스챤 밀집지역에 위치한 팔랑헤당본부 3층건물에 중량200Kg의 폭탄이 터지면서 건물이 전파되면서 50명 이상이나 사망했다.

게마이엘씨는 지난달 극렬좌익및 회교도들의 반대속에 국회에서 차기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대통령 취임 9일을 앞두고 이같은 참극이 벌어졌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게마이엘씨는 화요일 정기당원회의를소집, 400여명의 당원들에게 연설을 하려던 순간 1층에서 폭탄이 터졌으며 게마이엘씨의 시체는 14일밤 희생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구덩이 속에서 발굴됐다.

◆숨진 게마이엘씨

좌익분자와 회교도들이 게마이엘씨가 당선될 경우 나라를 분열시키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의 대통령 당선을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이들이 범인일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뚜렷한 범인이 체포되지 않고 있다.

회교도들과 좌익분자들은 1975~76 내전에서 팔랑헤당원과 기독교 군국주의자들과 싸웠으며 게마이엘씨는 79년도, 80년도에도 암살을 당할뻔 했으며 80년도에 일어난 암살기도에서는 자동차에 폭탄이 터져 18개월된 그의 딸이 희생되었다.

개천절 기념모임

1일, 총영사관주재

토론토 한국총영사관(총영사 이상훈)은 10월1일(금) 하오6~8시 토론토시내 로열·요크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천절 기념 리셉션을 연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열리는 이 개천절 기념모임에는 교포들은 물론, 많은 타민족 명사들이 초청되어 한국의 건국일을 축하하곤 한다.

한국, 일본눌러우승

세계야구 : 8회말 역전5 : 2

(서울14일=연합)한국은 14일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제27차 세계아마추어야구선수권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선두를 달리던 일본을 5-2로 꺾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약5만명의 관중이 운집한 잠실구장에서 8회초 2대0으로 일본에 리드당하고 있던 한국은 8회말 대거 5점을 얻어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10개국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2위는 종합전적 7전2패를 기록한 일본이 차지했으며, 3위는 6전3패를 각각 기록한 미국과 대만에 돌아갔다.

한편 캐나다는 5전4패로 4위를 기록했다.

전적은 다음과 같다.

	승	패
한국	8	1
일본	7	2
미국	6	3
대만	6	3
캐나다	5	4
화란	3	6
도미니카공화국	3	6
파나마	3	6
호주	2	7
이태리	2	7

데모진압용 전기충격봉 한국에 5백개 판매 결정

LA타임즈보도, 인체에 전류흐르게 제조된것

레건정부는 국무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데모진압용 전기충격봉 5백개를 한국에 팔기로 결정했다고 LA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가축몰이용 막대기와 비슷한 이 충격봉으로 찌르면 강력한 전류가 인체에 흐르게 되나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인권보호단체들은 이같은 충격봉이 데모진압뿐 아니라 고문과 심문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고 덧붙였다.

타임스는 이어 한국은 법으로 정치활동과 반체제인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국무성은 상무성에 대해 이 충격봉의 수출허가를 내리지 말도록 촉구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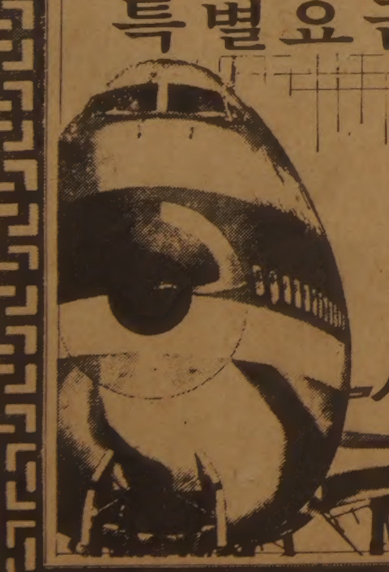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반금 화상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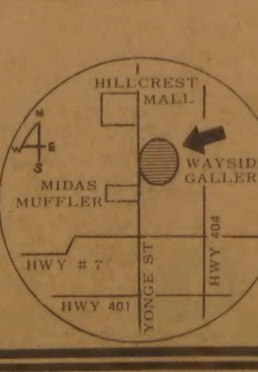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의 便安하고
즐거운 旅行을 위해
저희가 있읍니다
최 동 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SEOUL TRAVEL
631 BLOOR ST. W

초대합니다
여기 젊음의 푸른 꿈을 화폭에 가득 담은 미술잔치에 모시오니, 부디 오시어 한 말씀 채질을 부탁 드립니다.
6인전
조중형 · 엄 혁 · 조영미 · 강상덕 · 김길수 · 김인호
리셉션 : 1982년9월17일(금) 오후7시
기 간 : 9월17일부터 10월9일
★영업시간 : 월, 화, 수, 토 오전9시～오후6시
목, 금, 오전9시～오후9시
9185 YONGE ST. THORNHILL
☎ : 886－1667


East Asian Library
Rm 3010,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영어교육강화하라"

문교부, 토론토교위에 시달

토론토 교육위원회는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3개년 특별계획을 마련, "영어교육 최우선"이라는 기본시책을 교사, 학생및 학부모들에게 재주지시킬 방침이다.

이와같은 방침은 온타리오주 문교부 토론토교육위원회 산하 학교의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한후 보고서를 발표, 토론토교육위원회는 훌륭한 영어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교사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데 자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타리오주 문교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많은 교사들은 영어가 토론토교육위원회의 최우선과목이라는 시책을 믿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교부는 또 학교측도 학생들에게 영어를 말하고 쓰는 법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상당수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언어구사력의 향상을 돕기위한 방편으로 과학과 수학을 포함한 모든 학과목을 동원하라고 하는 위원회의 중요시책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토론토교육위원회의 영어교육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에는 구체적인 새로운 코스는 명시되지 않고있지만 모든 초급학교는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보다 자주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수 있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금년부터 85년도까지 매년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날들을 설정해 이들에게 영어교수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며, 학교측에서는 매년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롬뮤니티회의를 소집, 학부모들에게 교육과목을 설명한후 보다 훌륭한 영어교육을 위한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알립니다

9월15일자(수) 본지 제927호는 윤전기 고장으로 인쇄가 지연됐읍니다. 따라서 발송및 각 식품점 배달도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14일자 2면 교민동정란의 "최규훈"씨 기사는 "최규흘"씨의 잘못이었읍니다. 최씨는 범한서적 북미총판으로 최근 서울 본사사장을 맞아 바쁜 나날을 보냈었읍니다.

하루 쉽니다

인기연재소설 〈제5의 사나이〉는 지면관계로 오늘 하루 쉽니다.

스페인 전세기 추락

DC-10이륙중 화재; 46명 사망

(말라가, 스페인)393명을 태운 뉴욕행 DC-10 스페인 전세여객기가 말라가공항을 이륙도중 추락하면서 화재가 발생, 최소 42명이 사망하고 90여명이 화상등 중경상을 입었다.

메트로 토론토 주민 24명과 오타와 주민 2명등 26명의 캐네디언들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캐나다 승객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캐나다 승객중 신혼여행중인 토론토의 머리·말로니씨 부부는 목숨을 건져 신부인 캐런은 등에 화상을, 신랑은 경상을 입었다.

이 부부는 사고로 인한 충격때문에 비행기대신 선박편으로 14일 걸려 토론토로 돌아올 예정이다.

스페인의 스판택스전세회사소속 995편 DC-10기는 승무원 13명과 승객 3백80명을 태우고 말라가공항을 이륙하던중 기체의 진동을 느낀 조종사가 불시착을 시도해 총묘원에 추락, 화재를 일으켰다고 스페인의 EFE통신이 보도했다.

말라가공항당국은 40구의 시체를 비행기잔해에서 끌어냈으며 임시시체공시소로 개조한 군용격납고에 안치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으나 3명의 스튜어디스는 행방불명으로 알려졌다.

선련사 방생법회 공원묘지 확정지

한국불교회 선련사(주지 김삼우)는 오는 19일(일) 선련사수도원과 불교공원묘지로 확정된 Kaladar(Land of Lakes 지역, Hwy 7과 41이 만나는곳)로 야외방생법회를 보러 간다.

봄과 가을 1년에 두번 행하는 이 방생법회는 생명의 존엄성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자비와 평화의 불교정신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법회에 참여 희망자는 토요일 이전으로 연락 바란다고 한다.

연락처: 선련사 533-6911, 532-3491.

청소년 문화잔치 우리말 잘하기

교포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모국어와 한국얼을 길러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마련하는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가 10월10일(일) 하오4시 토론토교육회관(252 Bloor St. W. Tor.)에서 열린다.

토론토의 한카청소년문화협회(회장 이인용)가 토론토 라이온스클럽과 공동주최로 한글날에 교포2세들의 모국어 사용 긍지를 북돋는 문화행사로 각 한글학교, 교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원들과 일반청소년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다.

우리말 잘하기는 제목자유이며 5분 이내, 웅변은 「한글을 배워야 할 이유」 주제로 7분 이내이다.

작년도 전체 최고상에게는 한국 문교장관상이 주어졌다.

참가신청 마감은 9월30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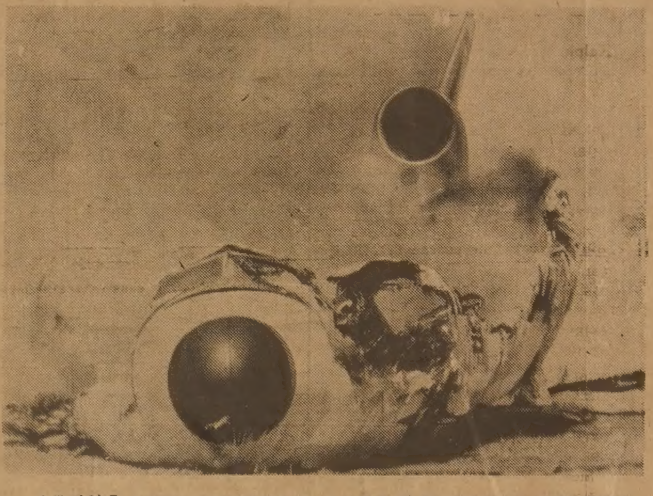
윤정호씨 3관왕 위니펙 골프대회

(위니펙)지난 6일 위니펙 탁시도골프클럽에서 열린 이암태권도장 주최 골프대회에는 30여명이 참가, 폭우로 인해 성적이 저조했다.

이날 시합에서 윤정호씨가 3관왕이 됐다.

◆입상자
1등: 윤정호(89)
2등: 강민수(91)
3등: 이태준(93)
버디상: 윤정호
롱게스트 드라이브: 윤정호(320야드)
니어리스트 핀: 이암

한국일보
533-2361



▲주저앉은 전세기-스페인전세회사 「스판택스」의 DC-10제트기가 말라가공항을 떠나 뉴욕으로 가려고 이륙하던중 하이웨이옆에 불시착해 기체가 파손되고 1백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말라가, 스페인 〉

금년도 미스·서울 이유정양

아리송한 납치소동

전과자 한씨와 미주애정행각중

(덴버-LA지사)82년도 「미스 서울」에 당선된 이유정양(23, 호적명-이순복)과 전과 6범의 한승희씨(28)가 미국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끝내 납치소동으로 미국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이들은 지난 9월4일 위조여권으로 한씨는 강상돈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이양은 김민숙으로 위장하여 LA, 뉴욕, 신시내티, 클리브랜드지역을 전전하다 덴버에 도착하자 이양이 친구에게 『납치되었으니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양 친구는 경찰에 신고, FBI와 아라파호 경찰이 합세하여 한씨를 체포했다. 한씨는 1급강간혐의와 1급유괴혐의로 현재 아라파호카운티구치소에 수감중.

그러나 체포된 한씨는 12일 본보기자와의 구치소내 인터뷰에서 『납치와 강간은 사실 무근이다』라면서 『어떻게 한국과 미국공항에서 납치가 묵인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 이양의 동의아래 미국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AP와 UPI통신및 현지 TV방송, 신문등은 일방적으로 이양의 진술만을 센세이셔날하게 보도했다.

한씨는 미국입국경위에 대하여 의정부에서 여권2개를 8백만원에 구입해 지난8월6일 이양을 데리고 호텔을 전전타가, 9월5일 김포공항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당시 미화2천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미수사당국은 한씨가 과거 미국에서 마약밀매관계로 추방당한 사실이 있어 그 방면에도 수사를 펴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이양의 미모에 반해 함께 미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왔다면서 한때 명동에서 동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지난 11일 상오 체포당시 자신의 혐의가 강간이라는 사실에 놀란 나머지 오른손 정맥을 잘라 자살을 기도했다.

한씨는 이양과 미국각지를 돌아다니던중 이양이 『친구가 있는 덴버에 가서 살자』는 말에 지난 11일 덴버의 힐튼·인 호텔에 투숙했다.

이날 상오 이양은 『친구집에 다녀오겠다』고 나간후 갑자기 경찰이 급습, 체포됐다고 한씨는 밝혔다.

문제의 이양은 H대 미술대에 다녔으며, 그후 일본대사관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지난 5월 미스서울에 당선됐었다.

이양은 지난 8월16일 한씨와 같이 지낸 후 집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금방 들어가겠다』고만 전하고는 소식을 끊었다.

한국경찰에 의하면 한씨는 강도·상해·밀항·업무상과실혐의등 전과6범이었는데 고3때부터 여자와 동거로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때 동거한 여인으로부터 10세와 4세된 자녀가 있는데 모두 어머니가 부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희씨

한씨는 미국에서 케네디고교를 나왔으며 미국명은 필립으로 항시 재미교포로 행세하여 왔다.

이번 미국여행중 한씨는 이양의 수첩에서 서울 플라자호텔의 일본인 매니저 호시노·다께이즈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아내어 서로간에 심한 언쟁도 있어 결국 이양이 한씨를 피하려고 납치극 소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 주변에서는 보고있다.

한편 덴버의 FBI, 이민국및 경찰은 이번 사건을 놓고 합동회의를 가졌는데 예비청문회는 13일 하오2시로 결정됐다.

한편 아라파호카운티지방법원은 13일 하오 한씨에 대한 보석금을 5만달러로 결정하고 16일 상오8시 이 사건에 대한 예비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을 넘어 미국까지 애정행각을 벌이다 납치극 소동을 벌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82년도 「미스 서울」이유정양.

『로이·톰슨·홀』 개막날

명사들 총집결 최고의 사교잔치

13일밤 로이·톰슨·홀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빛났다. 휘황찬란한 대형 샹들리에 아래로 $100부터 $500까지의 2,800객석에는 다이아몬드와 훈장등 온갖 치장을 동원한 최고의 정장차림의 토론토 명사들로 번쩍댔고, 공기는 향수냄새로 자욱했다.

총공사비는 $3천9백만의 이 새 매씨·홀은 신문왕인 고 로이·톰슨의 이름을 따 로이·톰슨·홀이라 이름지은 것은, 톰슨신문회사의 새 총수인 그의 아들 케네스·톰슨이 가장 많은 공사기금을 기증한데서 연유한다.

이날 저녁6시부터 2시간동안 축하객들은 로비에서 독일제 와인을 주고 받으며 토론토의 최고급 명사임을 자부하는 듯 했다.

7시쯤 톰슨홀을 설계시공한 아더·에릭슨이 등장, 트루도수상의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받는 토론토변호사 존·터너와 얘기를 나누었고, 케네스·톰슨, 성악가 모린·포리스터, 메트로 시의회의 시장 폴·갓프리, 방송인 고든·싱클레어, 연예흥행사 에드윈·머비쉬, 에드워드·슈라이어총독부처, 윌렴·데이비스 주수상부처등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이날밤 일부 청중들은 로이·톰슨·홀 음향장치와 겉모습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교민 소매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계 특별할인 대매출하오니 이 기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1982년9월18일(토)부터 9월30일(목)까지

7up	6.79
WILSON	5.79
CANADA DRY	5.79
ROYALE TOILET TISSUE 24's	16.99
ROYALE FACIAL TISSUE 36's	27.99
ROYALE FACIAL TISSUE 72's	31.99
KLEENEX FACIAL TISSUE 72's	35.85
KLEENEX POCKET 12's	16.50
TAMPAX (Reg, Super, Plus)10's	11.99
TAMPAX (Reg, Super, plus)40's	3.39
GROCERY BAG #1 BANDLE	3.70
#2 BANDLE	4.19
#3 BANDLE	4.78
#5 BANDLE	6.29
#8 BANDLE	7.75
#10 BANDLE	8.68
#12 BANDLE	10.69
#14 BANDLE	11.68
#20 BANDLE	13.75
BIG LIGHTER	EACH .70
DJEEN LIGHTER	EACH 1.09
RONSON LIGHTER FUEL 4oz×12's	6.89
RONSON LIGHTER FUEL 8oz×12's	9.98
RONSON BUTAN MULTI FILL 38gX6's	5.29
RONSON BUTAN MULTI FILL 70g×6's	7.19
BICYCLE PLAYING CARD 12's	20.95
BEE PLAYING CARD 12's	21.95

BLACK GARBAGE BAG 10'×2's	16.95
J. CLOTH (ALL COLOUR)	33.90
BOOK MATCH 50's×50	17.95
LIGHT BULB(40w, 60w, 100w)2's×12	11.39
LYSYL	6.65
FLAME GLO FIRELOG 5Lb×6's	7.09
NORTH LAND FIRELOG 5Lb×6's	7.09
GOLGATE 25ml×36	25.89
GOLGATE 50ml×24	21.89
SUNLIGHT DETERGENT 3L×12	23.59
DOWNY FABRIC SOFTNER 2L	19.90
WRIGLEY'S DISPLAY DEAL	20.95
LIFE SAVER(ALL FLAVOUR)	4.95
BREATH SAVER(ALL FLAVOUR)	4.29
B Y(ALL FLAVOUR)	3.29
BEECH NUT(ALL FLAVOUR)	4.69
DUET(RASIN, PEANUT)	4.98
Y. S LIC 5¢(RED, BLACK)	1.99
Y. S LIC 10¢(RED, BLACK)	3.39
Y. S LIC CIGAR(RED, BLACK)	2.99
VICKS COUGHDROP DEA(6BOXES)	33.85
(CHERRY 2, MENTHOL 2, LEMON 1, FRESHM 1)	
VICTORS DEAL(4BOXES)	21.89
(RED 2, GREEN 2)	
HALL DEAL(7BOXES)	38.95
(REG 2, CHERRY 2, HONEY 1, COOLM 1, ICEM 1+ 10PKG, FREE)	
VICKS CLLD CARE PREPACK	40.95

주식회사 신의상사
SINCERE TRADING CO. LTD.

116 TYCOS DR. TORONTO
☎ : 789-7544, 7545, 7546, 7547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판매목적 성인잡지 소지

상점주 입건

"외설잡지 소지죄"

최근 성인잡지 판매로 인하여 경찰당국이 상점주를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의 주의를 요하는 동시에 협회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7월5일 저녁 9시경에 경찰이 C회원 가게에 출현하여 성인잡지를 압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설잡지의 소지"(Possession of Obscene Magazines for Purpose of Sale)죄로 형사입건하고 8일에 지문채취, 12일에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12월9일로 결정되었다.

또한 9월3일에는 K회원 가게에 영장을 소지한 경찰이 출두하여 40여권의 잡지를 압수하고 4일에 다시 나와 사진촬영을 했으며, 10일에 지문채취,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잡지 공급회사에서는 자체 변호사를 통하여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확약을 하고 있다. 이 잡지를 판매하는 회원으로서는 1)정식으로 잡지회사를 통하여 공급받는 소매업자가 입건대상이 되는 잡지여부를 가려낼 길이 없고, 2)이러한 종류의 인쇄물은 공급자가 소매업자에게 분배하기 전에 적발되었어야 마땅하므로, 3)형사책임은 공급자가 져야 타당하고, 4)따라서 회원상점은 비록 불기소처분이 되더라도 그 동안에 불필요한 시간과 신경을 써야하는 폐단을 없애야 하겠다.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이러한 불안을 없애고 안전하게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경찰당국의 해당간부를 협회사무실에서 만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16일에는 Metro News사의 부사장과 면담하기로 약속했다.

◈알립니다◈

◆82년도 협회 살림을 마무리짓고 83년도의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제4차 정기이사회를 오는 9월30일(목) 오후6시에 Inn on the Park호텔의 O Room에서 개최한다. 총회를 앞둔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므로 이사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해주기 바라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83년도 협회 Calendar를 제작 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성장하는 협회를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고, K.B.A.의 힘을 Supplier들의 머리에 심어주기 위하여 년내에 선을 보일 협회달력을 기대해 주기 바란다.

◆Toronto Sun에서는 9월19일부터 애독자들을 상대로 $117,000상당의 주택과 Dominion및 Stitches의 상품권을 포함한 $133,000해당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며, 거래소매업자들을 위해서는 9월20일부터 10주간 매일 Mystery Man이 상점을 방문 광고가 부쳐져 있으면 즉석에서 $10을 지불하고 Dominion과 Stitches 상품권($100)추첨대상 명단에 오른다. 추첨은 12월10일이라고.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얼어죽은 베짱이

아래의 글 "얼어죽은 베짱이"는 1979년4월 실협뉴스 제3호에 게재되었던 성명미상의 어느 회원이 투고하였던 글이다.

오늘과 같이 우리의 「실협」이 750여명의 회원과 년예산 22만불선에 육박하는 대단체로서 성장하고 보니 기고자의 우려는 한낱 기우에 불과하였던 것이라 하겠으나, 보다 적극적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우리들 자체의 "협동조합" 설립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모두가 상기해볼 가치가 있는 "글"이라 편집자는 생각하고 이에 재게재해 본다.

이솝우화에 잘 알려진 "베짱이와 개미" 얘기가 있다. 인간사의 갖가지 모습을 재미있는 동물의 얘기로 꾸며 은근한 처세훈을 안겨주는 이솝(Aesop)의 우화이다.

지금 2500년전에 쓰여진 이야기들이 우주과학 시대인 오늘에 와서도 우리의 아픈곳을 찌름은 웬일일까?

얼어죽은 베짱이의 이야기는 짤막하다. 한여름내 시원한 그늘에서 인생을 손쉽게 살아갈 수 있음을 구가하던 베짱이가 엄동설한에 얼어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이다. 여기에 개미가 조역으로 출연한다.

피땀흘리며 일하던 개미가 춥고 배고파 동냥길에 나선 베짱이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그러나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베짱이이기에 결국은 길거리에서 비명횡사하게 된다.

토론토 한인 소매상경영주중에 적지않은 베짱이가 있다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많은 회원이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좀더 원대한 포부와 소망, 그리고 무조건 뭉쳐야 한다는 소박한 철학에서 협회를 만들고 또 키워나가고 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상당수의 교포기업인이 협회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자생적 모임체(Voluntary Organization)에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사에 달려있기에.

그러나 그들 비참여자가 뒷구멍으로 협회의 위력을 끌어다가 자기 뱃속을 불리우는데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흥, 협회 23%, 난 진작부터 25% 받아왔어."라는 말씀들에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어떤 분은 세일즈맨을 불러 "야 내가 협회로 가면 몇% 받는데 너 얼마를 더 주겠나?" 하며 공갈 탕치고 간 빼내는 재주 지닌 분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여보, 뭐하러 협회에 따라가오? 입만 벌리면 홍시가 떨어지고 호박이 굴러 들어오지 않소"하며 일하는 개미에게 자못 충고하는 그런 분들.

여기까지는 보아주자, 협회의 존재와 활약으로 인해 미운 자식도 떡 한쪽 더 얻어먹게 되면 그 역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도 문제는 남아있다.

모두가 베짱이가 되는 그날, 그날은 떡 한쪽 나눠주던 개미와 베짱이, 함께 굶고 얼어죽는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겠는가?

<법률상담>

유 서 <6>

Ralph M. Levine
강공선 역

▲정확한 문구사용의 중요성

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명확한 문구를 쓰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한다. 법원이 유서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 두가지를 일반 원칙으로 삼고 있다.

1)기술적인 법률용어는 기술적인 법률상의 의미 자체로만 해석하지 일반적인 의미로 유추해석하지 않는다.

2)두가지 뜻을 가진 문구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해석을 유서이외의 다른데서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법원은 유언자가 「생각하고 있던 의도」에 관계없이 표현된 문구자체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 원칙은 철저한 것이므로 유서작성시에는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는 나의 진의를 아무개에게 설명했으니까 차후 유증의 내용을 분명히 하고 싶으면 아무개를 불러서 물어보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절대금물이다.

유서는 실제로 사용한 문구만을 토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유서에 기재한 내용이 실제로 바라던 내용과 엉뚱한 차이를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개 집에서 자작 작성한 유서중에 회미하고 이중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해 놓음으로써 장기간의 법절차를 요하게 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중요한 점을 열거해 보기로 한다.

1)주택이나 별장을 유증한다고 하면, 이것은 건물과 건물이 서있는 토지를 유증한다는 뜻이 된다. 가구는 포함이 안된다. 가구와 전기기류까지 유증하고자 하면, 「내용물」(Contents) 또는「일체의 가재와 가구」(all household goods and furnishings)라고 표현을 해놓아야 한다.

2)반드시 성과 이름을 다 기입할것. 절대로 「내친구 John」이라던가 「내조카 Alice」라고 해서는 안된다. John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유서에 적힌 바로 그 친구라고 주장할런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Alice라고 하는 조카가 둘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Full Name을 써서 이러한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3)동산인 경우 특히 해당 품목을 명시할것. 그림을 유증하려면, 화가의 이름과 함께 그 그림을 간단히 설명해 놓도록 해야 한다.

4)현금을 유증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현금(Cash) $10,000이라고 명시를 하고, $10,000에 해당하는 저축채권(Canada Savings Bonds)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Bonds)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현금이 없을 경우 유언집행자(Executor)는 이 $10,000을 지불해주기 위해서 아주 불리한 시기지만 재산을 매각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유서의 근본목적

유서의 근본 목적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의 처분이고 또 하나는 유언집행자의 임명이다.

1)재산의 처분

유서의 첫째 목적은 유언자의 재산처분이므로 자기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상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적문서만이 자기 재산의 분배방법을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전에도 말한바와 같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기로 약속한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서면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개정상속법이 요구하는 양식에 부합된 것이 아니면 불충분하다. 이 양식에 대해서는 차후 논하기로 한다.

사망후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면 꼭 유서가 있어야 한다. 유서없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유언없는 상속"(Intestate Succession)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들에게 분배된다. 각주마다 유언없는 상속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온타리오주에는 개정상속법의 제2부에 들어있다.

2)유언집행자의 임명

유서의 둘째 목적은 사망자가 유언집행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유언집행자는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이 재산관리는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유언장에 의한 재산을 유언자의 지시대로 분배를 하고, 그 재산가운데에서 세금과 부채를 갚고, 그외의 많은 관리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유언집행자의 할 일이다.

유언집행자의 임무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상세히 의논하겠으나, 어쨌던 유언집행자가 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재산의 관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므로 자격있고 책임감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는 적절하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유서인 것이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YMCA 웨스톤한글학교

개 학: 9월22일(수)오후4시반~7시
수강료: 무료
수 업: 매주 수요일 오후4시반~7시
장 소: DAYSTROM국민학교 (삼복식품 뒤)
모집인원: 각반 25명
유치반(유치원생) 오정숙선생
초급반(1~2학년) 김옥자선생
중급반(3~4학년) 이영희선생
상급반(5학년이상) 최춘자선생
주 최: NORTH YORK BOARD OF EDUCATION HERITAGE LANGUAGE PROGRAM

＊웨스톤영어교실은 10월4일(월) 오후7시에 같은 장소에서 개강합니다. (월·수)

YMCA 토요학교 취미교실

● 개학: 9월25일(토)~12월11일(토)
장소: West End YMCA(931 College St.)
● 과목:

한국무용	(오후2시~3시, 3시~4시)	백미희 선생
기타	(2시~3시 개인지도)	권혁일선생
태권도	(4시~5시반)	이태우사범
피아노	(2시~5시 개인지도)	노경심 선생
바이올린	(2시~5시 개인지도)	이진화 선생
미 술	(2시~3시, 3시~4시)	문안나·권수인
수영	(2시~6시)	자유수영(회비별도)
발레·재즈(화 6시~8시)		PAT STEWART LOTT($30)

회비: 토요취미교실은 한과목에 $30이며 $60이면 과목에 제한없이 택 할수 있음. 한집서 두명이상이면 $5 씩 할인함.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함.

＊Y토요학교는 10월9일(토)은 감사절 주말로 로 수업이 없으며, 알공킨단풍관광만 있음.

YMCA 토요학교 (무료)

● 개 학: 9월25일(토) 오전 10시반~오후 1시
● 장 소: Bickford Park고등학교 777 Bloor St. W.(크리스티 지하철역)
● 수강료: 무료
● 모집인원: 약200명
● 교사진: 한글교실 유치반(유치원-1학년) 윤영희선생
초급반(2학년-4학년) 김필숙선생
중급반(5학년이상) 조인숙선생
영어교실 노인기초반…최기선선생
노인초보반·조성자 김영훈선생
노인중급반…김정지선생
회 화 반…정호영선생
●주 최: Toronto Board of Education West End YMCA Korean Program

◇감사절주말 단풍관광

(제14회 Y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 때: 10월9일(토) 오전8시~오후7시반
● 곳: 알공킨 국립공원
● 회비: $20(납부된 회비는 반환치 않습니다)
● 후원: 국제와이즈멘 알파클럽
● 빠스: 냉방·난방·화장실 시설이 있는 관광빠스
● 모집인원:
A호차(청년중심의 성열롱과 게임을 하며 가는 차)
B호차(노인들끼리 여흥을 즐기며 가는차)
C호차(조용하게 쉬면서 가는 차)

◇성서연구—시편강좌②(강사 조남유 목사) 10월17일(일) 오전7시~8시반

◇국제와이즈멘베타클럽—9월24일(금) 오후6시반 Y이사실…재일교포 문제(남궁성일)·신용조합과 서민경제(한상훈외)

◇새이민자 봉사센터—매일 오전10시~오후6시 이민온지 3년 미만의 이주자는 시간약속에 의해 통역·동반·번역·상담안내등의 봉사를 해드리고 있음.

문의는: 토론토한인 YMCA총무 김 창열
931 COLLEGE ST. TORONTO, M6H 1A1 ☎: (536-1166)

한국일보
우리의建全한新聞

蘇권력층 某種의 事態

국제電話폐쇄…「브後繼」와 관련된듯

【모스크바·워싱턴=外電綜合】소련은 10일 국제전화교환대를 한동안 폐쇄 외부세계와의 送·受信기능을 단절함으로써 이러한 조치들이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건강문제및 그후계자문제와 관련됐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소련 체신省은 이같은 전화선단절조치가 순전히기술적인 문제점때문에 빚어진것으로 기술자들이 수리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교환대가 고의로 업무를 완전중단했다는 일부 주장을 부인했다。

KGB、反體制운동團體 탄압 强化

그러나 모스크바의 서방외교관들은 소련이 외부와의 고립강화책으로 送·受信용직통국제전화선을 전면 폐쇄했다고 전했다。

소련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모스크바와 외부세계를 잇는 수신용직통전화선이 사실상 완전폐쇄된지 1주일만에 취해진것으로 외교관들은 소련측으로부터 『기술적인문제』때문에 국제전화를 무기한 폐쇄키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본국제전신전화공사(KDD)는 蘇聯이 이유를 밝히지않은채 9월3일이래 日·蘇間 자동시적통전화 두절상태가 최소한 2년동안 계속될것임을 통보해왔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美·蘇間 텔렉스통신과 日·蘇間 교환전화는 계속 정상기능을발휘하고있다。

모스크바거주 외국인들은 蘇·西方세계간의 전화망이 한동안의 전면두절상태끝에 이날 부분적으로 재개통됐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오직 수신만 가능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은 美·蘇間 자동전화두절상태로 미뤄 『외부세계와의 送·受信을 엄격히 통제할만한 모종의 사태가 진행되고있는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련은 KGB(비밀경찰)의 주도아래 反체제인사에대한 탄압을 강화, 그나마 몇 되지않는 反體制운동 단체들을 마저 최근들어 거의 활동을 중지하고있다고 소련 관측통들이 10일 말했다。

소련의 이같은 反體制활동 탄압은 유리·안드로포프前 KGB의장이 은퇴설이 나돌고있는 브레즈네프의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관측통들은보고있다。

소식통들은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을경우 모든 반대자들의 소리를 억누르기위해 새 KGB의장 비탈리·페도르추크에게 反體制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신속히 전개해주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3黨3役 16일 모임

民正·民韓·국민등 3黨 3役들은 오는16일 모임을 갖고 청와대 3黨대표회담에 따른 後續조치와 정기국회운영방안등 현안의 정치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權翊鉉 民正·柳漢烈 民韓·申喆均 국민당 사무총장은 10일저녁 모임을 갖고 정기국회에 앞선 各黨의 기본입장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서 합의했다。

政府、24~19項 是正요구

교과서歪曲 最終案 이번週初 日에전달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歪曲문제에 관한 우리측是正要求案을 이번주초 일본에전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소식통은 11일『관련부처가 일본정부에 전달할 最終案을마무리하고있다』고 밝히고『是正요구案에는 왜곡이 명백한 24개항 또는 19개항이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측 시정요구안에는 「3·1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것과 군대·경찰에 의해 「탄압」당했다는 부분을 「운동」과 「살해당했다」는 것으로, 한반도 「진출」을 「침략」으로 바로 잡을것등을 포함, 대체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最近世史 왜곡부분만으로 局限시키며 古代史 歪曲부분은 韓日양측의 공동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갈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社會漫評

찬바람이여 어서어서…

地平線

좀 거친 斷言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문학은 결국 인간내면의 기록이라고 볼수 있다。기동 줄거리가 아무리 흥미진진한 작품이라도 거기 인간이 빠져버린다면 예술적 가치는 소멸되고만다。픽션을 배제한 1인칭 서술인 자서전이 때로 소설보다 깊은 감명을 주는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숨결이 들리기 때문이다。

자서전의 한 형태로 고백문학이 있다。그 源流는 기독교의 참회사상이라고한다。첫 작품으로 聖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을 쳐든다。▼1천5백여년전에 쓰여진 참회록은 라틴어로 내적 표현을 드러낸 최초의 문헌이며 기독교사상의 고전으로 꼽힌다。聖者의 班列에 오른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었을때 방탕한 삶에 빠져 들었다。신분이 천한 여자와의 동서생활로 두 아들을 얻었다。그는 세속의 유혹과 理想의 괴리라는 틈바구니서 고민했고 한때 異教를 따르기도 했다。그래서 참회록엔 불완전한 인간의 신음이 들린다。그것은 완전을 갈구하는 「영혼의 소리」다。▼서양의 고백문학은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사상가 루소는 「고백록」이란 2부작의 자서전을 남겼다。분방한 청춘의 방랑、숨김없는 자기고백이 담겨졌다。2부 내용은 박해의 압박감에 쫓겨 병적인 자기변호에 기울어졌다는 비평도 받았다。루소의 고백록엔 自我의 해방의식이 목청을 높인다。뮈세、샤토브리앙같은 문인들도 대표적인 고백문학의 작가로 유명하다。▼1879년 소련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저술한 「참회」는 이 작가의 인생과 내적 갈등을 벌거벗은 듯 드러내 준다。작가로서 원숙한 단계에 들어선 50살의 나이에 써낸 「참회」는 톨스토이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 저작을 두고 이런 평가가 있다。「그가 전반생에의 작품은 쓰지 않을수도 있었을것이다。그렇지만 참회만은 쓰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작가의 고뇌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것 같다。▼자기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것이 우리의 오랜 美德의 하나였다。隱者의 나라 탓일까…。자서전이나 참회의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그러나 이땅에서도 용기있는 「告白」은 光復후 마땅히 나왔어야했다。日帝36년의 참회의 기록이다。앞으로 세워질 독립기념관 한 귀퉁이에 이런것이 전시될수 있다면 「과거의 親日」을 보는 오늘의 시각은 한결 달라질수 있지 않을까…。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11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코오롱그룹(李東燦회장 임직원일동) 6千8百萬원

三湖·東光企業(趙奉九회장 임직원일동) 3千百萬원

한국映畫製作者協(회원일동) 2千萬원

株式會社 大農 1千2百萬원

美都波百貨店 1千1百萬원

▲코오롱그룹 李東燦회장외임직원일동=6천8백90만원
▲(株)三湖·東光企業(株) 회장 趙奉九씨=2천만원 同임직원일동=1천1백73만원
▲韓國映畫製作者協會회원일동=2천만원(合同映畫 郭貞煥씨·東亞興行 李在薰씨·大英映畫 金仁東씨·泰昌興業 金容俊씨·南亞振興 徐宗浩씨·新韓映畫·鄭道煥씨·大洋필림 朴鍾赦씨·東協商事 金致漢씨·翰林映畫 鄭雄起씨·禾豊興業 鄭昌和씨·現進 金源斗씨·宇星社 金容德씨·東亞輸出公司 李于錫씨·聯邦映畫 崔春芝씨·貨泉公社 朴宗瓚씨·世耕興業 金花植씨·國際映畫興業 柳玉秋씨·三映필림 姜大榛씨·韓振興業 韓甲振씨·宇進필림 鄭鎭宇씨)
▲(株)大農=1천2백76만원
▲(株)美都波百貨店=1천1백85만원
▲大農建設(株)=6백9만원
▲大農油化(株)=5백29만원
▲美都波관광(株)=5백28만원
▲陸軍제1570부대장병일동=6백79만5백7원
▲韓國電力技術(株)사장 鄭根謨씨외 직원일동=3백3만8천6백원
▲相進實業(株) 會長 朴七龍씨외 일동=2백10만6천9백원
▲大韓요트協會 회장 金澈鎬씨=2백만원
▲大新高等學校(교장 金漢壽) 교직원및 학생일동=1백96만원

大農建設(株)	6백9만원
大農油化(株)	5백29만원
美都波관광(株)	5백28만원
陸軍1570部隊장병일동	6백79만원
韓國電力技術(株)鄭根謨사장外	3백3만원
相進實業(株)朴七龍회장 外	2백10만원
大韓요트協會 金澈鎬회장	2백만원
大新高等學校 金漢壽교장 外	1백96만원
서울성산國校 이경란교장 外	1백80만원
大韓化學機械工業李泳鎬대표外	1백74만원
韓榮貿易(株)韓永輝사장 外	1백52만원
東西海運(株)梁在元대표 外	1백50만원
서울대곡國校 김병렬교장 外	1백46만원
서울연신國校 안호영교장 外	1백18만원
大新中學校 金弼周교장 外	1백17만원
서울홍대사대附國김용석교장外	1백15만원
東寶城 李重學대표 外	1백15만원
(株)크라운觀光호텔(金寬植대표 임직원일동)	1백15만원
東洋纖維(株)金東哲사장外	1백12만원
서울禮式場 대표 金龍洙씨	1백만원
進學社·進學會館 趙宇濟씨	1백만원
道峰區 醫師會員 일동	1백만원

▲서울성산국교(교장 이경란) 전교생(대표 6년 김영로·박재령·김명규·5년 김수진·인솔교사 조정구)및 교직원일동=1백80만1천원【소년한국일보접수】
▲大韓化學機械工業(株) 대표이사 李泳鎬씨외 임직원일동=1백74만5천원
▲韓榮貿易(株) 사장 韓永輝씨외 임직원일동=1백52만7천1백원
▲東西海運(株) 代表梁在元씨외임직원일동=1백50만원
▲서울대곡국교(교장 김병렬) 전교생(대표 6학년 송혁기·김영훈·탁신혜·김수련·인솔교사 박종연)및 교직원일동=1백46만8천4백95원【소년한국일보접수】
▲서울연신국교(교장 안호영) 전교생(대표6년 박용훈·이정민·5년 이형욱·인솔교사 김현선)및 교직원일동=1백18만3천3백30원【소년한국일보접수】
▲大新中學校(교장 金弼周) 교직원및 학생일동=1백17만4천9백원
▲서울홍대사대부국(교장 김용석) 전교생(대표 6학년 조수현·김문정·박해술·인솔교사 김창동)및 교직원일동=1백15만4천6백10원【소년한국일보접수】
▲東寶城代表 李重學씨=1백만원·同직원일동=15만원
▲(株)크라운觀光호텔대표이사 金寬植씨외 임직원일동=1백15만원
▲東洋纖維(株)사장 金東哲씨외 임직원일동=1백12만2천원
▲서울禮式場代表 金龍洙씨=1백만원
▲進學社·進學會館 趙宇濟씨=1백만원
▲道峰區醫師會회원일동=1백만원

◇李東燦씨 ◇趙奉九씨 ◇朴七龍씨 ◇金澈鎬씨 ◇梁在元씨 ◇金寬植씨

在美동포들도 뜨거운呼應: 성금遝至

자이언트·인더스트리 대표 잔문씨	5千弗
해태아메리카 朴춘배社長 外	3千弗
東亞출판사美洲지사 金건진理事 外	3千弗
朴時彦·李周·李澤씨	千4百弗
南加州상의회장 文昌培씨	千弗
센츄리·인더스트리 崔明光대표	千弗
키트로닉 金基一대표	千弗
한국일보 LA支社 임직원	千弗
선라이즈·인더스트리 代表	千弗

◇뉴욕·LA支社 접수분

▲자이언트·인더스트리代表 잔문씨=5천달러
▲해태아메리카社長 朴춘배씨=2천달러
▲해태아메리카社 임직원일동=1천달러
▲南加州상공회의소회장·LA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협의회회장 文昌培씨=1천달러
▲센츄리·인더스트리대표 崔明光씨=1천달러
▲키트로닉社대표 金基一씨=1천달러
▲파크랜드건설대표 朴時彦씨·변호사 朴李周씨·대지부동산대표 朴李澤씨=1천4백달러
▲加州한국외환은행 홍성복行長외 임직원일동=5백달러
▲제13대 南加州한인회장 金明均씨=5백달러
▲해외교포무역인협회장 張鶴相씨=3백달러
▲한국TV대표 權寧九씨=3백달러
▲엠바서더여행사대표 張卿씨=3백달러
▲코리아타운 번영회부회장 金鉉經씨=3백달러
▲오렌지카운티 번영회회장 鄭浩寧씨=2백달러
▲하시엔다 정원수농장사장 李炳均씨=2백달러
▲加州한미정치활동위원회장 卞昌煥씨=2백달러
▲美洲한인봉제협회회장 姜감씨=2백달러
▲美洲한인봉제협회이사 任龍淳씨=2백달러
▲데이타퍼시픽대표 朴秀英씨=1백달러
▲李泰珠치과대표 李泰珠씨=1백달러
▲올림픽부동산학교대표 任好根씨=1백달러
▲프로골퍼 玄俊燮씨=1백달러
▲코스모스 트레이딩 컴퍼니대표 羅秀明씨=1백달러
▲吳興祚치과원장 吳興祚씨=1백달러
▲李喆洙후원회장 柳在乾씨=1백달러
▲한국일보LA支社 임직원일동=1천달러
▲東亞출판사 美洲주재 이사 金건진씨=2천달러
▲東亞출판사 美洲支社 임직원일동=1천달러
▲선라이즈·인더스트리 대표 金寅坪씨=1천달러
▲독립유공자 白仁明씨=5백달러
▲삼광 명리철학원장 曺誠祐씨=1백달러
▲아이디알 청소기 수리상 대표 申東淳씨=1백달러
▲임페리얼무역대표 李義德씨=1백달러
▲金炯淳씨(게리산)=1백달러
▲LA교포 李昊洙씨=1백달러
▲LA카운티 사회복지국직원 宋德鉉씨=1백달러
▲前WBA 라이트급 1위 金台鎬씨=20달러
▲뉴스라인즈 발행인 김기점씨=50달러
▲이준필 漢醫院長 이준필씨=30달러
【이상 한국일보 LA支社 접수분】
▲뉴욕한인 青果商상조회장 한영원씨=3백달러
▲뉴욕 한인회장 강익조씨=1백달러
▲의사 박현동씨=1백달러
▲변호사 인동호씨=1백달러
▲변호사 손창문씨=1백달러
▲변호사 김정원씨=1백달러
▲맨하탄종합백화점(대표 권오덕) 직원일동=1백달러
▲명동장·지꾸식당(대표 심만준)=1백달러
▲브로드웨이약국대표 권오윤씨=1백달러
▲고려서적대표 최응표씨=1백달러
▲보령한의원대표 김덕기씨=50달러
▲치과의사 장기호씨=50달러
▲중앙의료원장 안봉환씨=50달러
▲명보당대표 정현기씨=50달러
▲이인영씨=20달러
▲김 사진광고회사=5달러
【이상 한국일보 뉴욕支社 11일접수분】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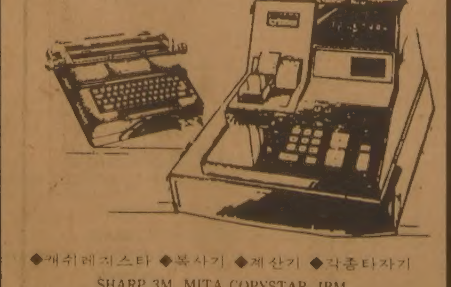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 인 환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회칙 제15조 1항에 의하여 제4차 정기 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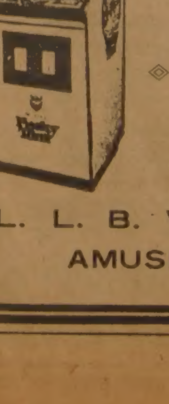
— 아 래 —

일시 : 1982년 9월30일(목) 오후6시
장소 : Inn on the Park Hotel Oak Room (Leslie & Eglinton)
안건 : 1 이사회 각 위원회 보고
2. 82년도 사업보고
3. 82년도 결산보고
4. 8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5. 83년도 예산안 심의
6. 기타

1982년 9월16일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이사장 김 태 진

비데오 게임 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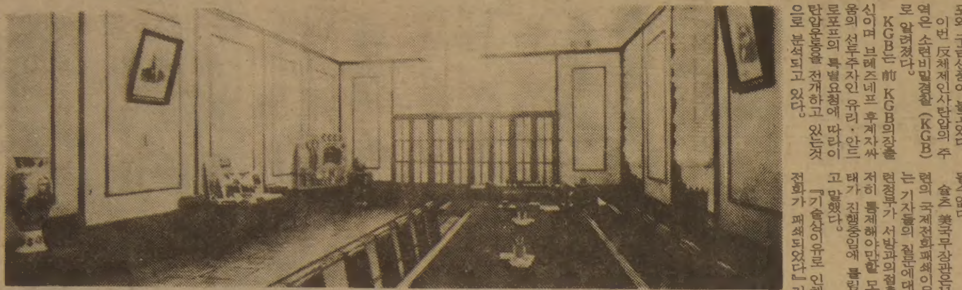
본사는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비데오 게임머신 공급회사로서 가장 이윤이높고 인기가 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 해 드리겠읍니다.

◇카버지역 :
METRO TORONTO와 ONTARIO 전역
◇신청연락처 :
실험사무실 533-7923
L. L. B. VIDEO AMUSEMENT LTD.

Big Chief®
Beef Jerky
1 BOX(48 PKGS) $13.10
술안주·다이엩용 스낵으로
한번 잡수어 보신분은 꼭 다시찾는
알버타산 순 쇠고기 포!
본인은 금번 본사와 온타리오주 총판권 계약을 맺고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 취급되는 비프 젙 —키를 판매중 아오니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즉시 배달해 드리겠읍니다.
BIG CHIEF ONTARIO 총판
정세용 244-2483

急迫…「크렘린暗鬪」

국제電話단절… 소용돌이속의 모스크바

「브」축출운동 본격示唆



◇크렘린宮안 브레즈네프집무실。西方—모스크바간 통신단절은 누가 장차 이權府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모스크바 크렘린宮의 동정이 심상치 않다。레오니드·브레즈네프(75)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 의장이 오는 12월 사임할것이라는 추측보도가 나온데이어 모스크바와 서방간의 국제전화가 전면 패쇄되어버렸다。

소련체신청당국은 기술장애로 인해 국제전화가 패쇄되었으며 수리가 진행중이라고말하고 있지만 미국과 함께 세계최강국임을 자부하는 소련이기에 어울리지 않는궁색한 변명이다。

이에 앞서 소련은 지난 9월2일과 3일부터 서방세계로 통하는 모든 직통 자동국제전화를 폐쇄시킨바 있다。

이번에는 교환을 통한 국[illegible] 소련과 서방세계와의 통신은 텔렉스에 의존할수밖에 없게됐다。

모스크바를 제외한 레닌그라드, 키에프, 민스크등 소련의 주요도시와 서방을 잇는 국제전화회선은 아무 이상없이 잘 가동되고 있다。

또 서방이아닌 東歐와는전화가 두절되지 않았다。

무슨 기술장애가있기에 유독 수도인 모스크바전화회선만 불통되고 있을까。모스크바당국은 침묵을 굳게 지키고 있다。

서방측 교환양들은 10일밤부터 모스크바측 교환양들을 호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련은 국내反체제인사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했다。

[illegible]에서 감시대상인물이었던 反체제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선풍이 불고있다。

이번 反체제인사탄압의 주역은 소련비밀경찰(KGB)로 알려졌다。

KGB는 前 KGB의장출신이며 브레즈네프 후계자싸움의 선두주자인 유리·안드로포프의 특별요청에 따라이 탄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前KGB의장인 비탈리·페도르추크는 유리·안드로포프의 심복으로 알려져있다。

모스크바에서 무언인가 正常을 벗어난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추측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사실들이다。

모스크바의 모든 추측이 항상 크렘린과 또 브레즈네프와 관계가 있는것 처럼 결론이 났었고 이번 역시 예외가 될수없다。

슐츠 美국무장관은 11일 소련의 국제전화패쇄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대해 『소련정부가 서방과의접촉을 철저히 통제해야만할 모종의사태가 진행중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기술상이유로 인해 국제전화가 패쇄되었다』라는 소련측 설명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국무성 하위관리들의 답변과는 퍽 대조적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紙는 브레즈네프가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케야르 유엔사무총장과 9일 만났던 사진을 이례적으로 크게 실어 모스크바에서 진행되고있는 일련의 사태가 브레즈네프의신상과 또 그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관계가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소련이 국제전화단절이라는 이례적인 방법까지 써가며 保安조치를 강화하고 있는것은 모스크바에서 서방측에 알려져서는 안될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反證하고 있는것으로볼수있다。

브레즈네프 신상에 이상이생겨 그가 집무불능상태에 빠져 크렘린에 權力空白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브레즈네프 축출운동이 본격화 되었다고 추측해본다는것은 무리가아니다。크렘린에 權力空白이 생겼다면 이는 후계자문제와 직결된다。

◇안드로포프

◇브레즈네프

◇체르넨코

지금까지 소련전문가들은 유리·안드로포프와 콘스탄틴·체르넨코를 가장 강력한 후계자로 꼽아왔다。

만약 브레즈네프 축출캠페인이 벌어졌다면 이운동의리더에는 유리·안드로포프가꼽히고 있다。

얼마전에 나돌았던 브레즈네프 12월 은퇴설을 배후조종한 인물로도 유리·안드로포프가 꼽힌바있다。

안드로포프와 후계자라이벌관계에있는 체르넨코는 브레즈네프 18년執權동안 그의 수족노릇을해온 同鄕후배이기때문에 체르넨코가 브레즈네프축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고생각하기는 어렵다。

역시 태풍의눈은 유리·안드로포프로보인다。

소련의 국제전화회선을 떡주무르듯 자를수있는 인물은KGB를장악하고있는 안드로포프밖에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KGB는 전통적으로 소련군부와 대립관계에있다。

안드로포프를 중심으로한 KGB세력이 소련군부와심각한 권력마찰을 빚을것이라는 추측은 그동안 여러번있었다。

안드로포프가 지난 4월정치국원과 서기장을 겸임하면서 KGB의장직을 스스로물러난것도 KGB가 주는 검은이미지를 씻고자해서였다。

안드로포프는스탈린사망이후 KGB를등에업고서 스탈린후계자를 꿈꾸다가 비참한 최후를마친 베리야의 前轍을 밟고싶지 않았을 것이다。

때마춘 反體制인사 拘禁선풍

旗手 안드로포프-軍部 정면대립 豫想

안드로포프가 본격적으로 브레즈네프축출 캠페인을 전개하면 소련군부와 정면대립할지도 모른다。

소련군부가 후계자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안드로포프를 강력히 견제한다면 후계자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지고예상외의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또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브레즈네프가 유명을 달리한다면 과도적인 집단지도체제가 당분간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國際焦點

집단체제가 등장할경우 이를 주도할 인물은 노령에달한 정치국원으로 채워질것이고 이들이 은퇴할때까지 크렘린의 實權은 볼셰비키 혁명을 겪지않은 세대가 장악하게 될것이다。

어쩌면 지금 모스크바에서 벌어지고있을 사태는 볼셰비키세대의 마지막章을 告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1917년 러시아大혁명에 참가했던 볼셰비키세대는 대개가 죽었거나 노령으로 은퇴가 얼마남지않은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常軌를 벗어난 權力투쟁이 크렘린宮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련이 이례적으로 국제전화회선폐쇄라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크렘린에서 전개되고있을 權力투쟁이 常軌를 벗어나 변칙플레이로 전개되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李炳圭기자】

아침에

理性의 言語를…

무더웠던 여름의 興奮을 털어버리자

趙廷來 〈소설가〉

출근길을 서둘러 문밖으로 나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본다。피부에 감촉되는 싱그러운 바람결을 느끼는 순간 거의 무의식적으로 취한 행동이었다。

거기, 하늘은 하나의 커다란 보석으로 해맑게 빛나고 있었다。하늘은 그대로 커다란 에머럴드였다。아, 가을인가…。하늘을 우러르고 선 채 예고없이 그러나 어김없이 찾아와 준 계절 앞에서 잠시 나이를 망각한 우수적 감상에 젖어든다。

바람의 계절 가을、고독한 영혼의 흐느낌처럼 낙엽이 지고…、어차피 삶이란 한줄기 바람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몸이 흠뻑 젖도록 계절의 허무감에 싸이곤 했던 파란 나이 적의 아픔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르 울리는 것을 느낀다。무심코 고개를 떨군다。시야에 확대되어 오는 먼지 낀 구두。출근길인것을 억지로 깨닫는다。

차에 올라서 며칠사이에 저편으로 물러난 여름의 잔상들을 더듬어 본다。마땅한 표현이 없을지경으로 온세상이 불덩이인듯 더웠었다。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슬프고 우울하게 만든 큰사건이 재판되고 있었다。7월의 막바지에서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난데없는사건이 신문지상을 뒤덮기 시작했다。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었다。

8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도 더위는 꺾일줄을 모르며 기승을 더해갔고、각신문들은 그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역사 왜곡에대한 심층보도를 다각적으로 펼쳐갔다。개인적으로 볼수없었던 작두살해 장면、두팔을 몽땅 잘라버린 사진같은것은 일본의 동물적 잔학상을 증거하는데 수백만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신문들이 보여준 힘과 노력은 민족의 이름으로 갈채를 받을만 한 것이었다。그리고 언론의 필요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스스로 입증을 했다。언론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신속한 열기를 모아「독립기념관」건립과 모금으로 국민의 마음을 이끌어간 것이다。

고사리손들이 돼지저금통을 들고 오고、카바레 여급들이 백만원이 넘는 돈을 모아 내놓고、독립유공자의 미망인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연금을 기증하고…、매일 각 신문마다 가슴 뭉클한사연들이 실리고 있다。

그 동안 범국민적으로 명분있는 모금을 여러 차례 해왔다。그러나 이번처럼 열기에 찬 적극성이 있었던가。왜 이번에는 이다지도 진지하고 숙연하도록 모금의 물결이 파도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일본에대한 원한 때문만이 아닐 것이며、잃은 나라를 찾기 위해 무수히 죽어간 영령들을 위해서만이 아닐 것이며、단순히 조국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려는 것만은 더우기 아닐 것이다。그것은 민족에 대한、국가에 대한 우리의 자의식이 언제부터인가 뿌리내려져 있음의 반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의식은 현재가 아니라 보다 더 먼 미래、과거의 치욕스런역사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의지의 거울을 만들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아까운 돈들을 보람과 긍지로 바꿔 갖는 것이 아니랴。

『얼마를 냈다고?』

『3천원』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내 한달 용돈이죠』

『그래、아깝지 않던?』

『아니…、아빠는?』

그것도 말이라고 한느냐는 듯 아들놈은 경멸의 표정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래、그 돈을 왜 냈니?』

『일본놈들한테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목숨을 바친 분들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않게 하기위해서죠』

거침없이 쏟아진 국민학교 4학년짜리의 발언이었다。이것이 선생님의 주입식교육의 결과라고해도 상관없다。어차피 개념정의나 개념파악이 주가되는 기초교육 과정에서는 백지에 그림을 그려가듯 주입하는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던가。더우기 민족관의 정립은 국가에 대하여 이의없이 경례를 표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일때 진실하고 순수한 것이리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싯점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자세를 한번쯤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어느 때나 정치적 사회적 언어가 높아지면 문화적 문학적 언어는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감정적 언어가 격해지면 따라서 이성적 언어는 [illegible]。

우리는 비정상으로 더웠던 여름 한달을 헤쳐오면서 그 더위보다 더 뜨겁게 감정적 언어를 폭발시켰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감정적 언어에는 지속성이 없고 참조성이 없다。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일의 해결이나 모색을 위한 바람직한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없다。우리는 가을의 시작과 더불어 「독립기념관」건립을 위한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다。이것은 우리가 감정적 언어를 잠재우고 이성적 언어를 깨웠음을의미하는 것이다。이를 계기로 하여 우리는 더욱 냉철한 이성적 언어를 준비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조락의 계절 가을은 우리에게 근원적 우수와 원초적 명상의 시간을 갖게 한다。우리는 뼈의 피보다 더 차가운 이성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진정한 모습을 밝힐수 있는 등잔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정의 깊은 잠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그리하여 자연적으로 오는 계절 가을을 이성의 계절 가을로 우리들 가슴 속에 계속적으로 간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오래고 긴날을 통해서 이성의 가을을 갖지못한 불행을 겪어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이성의 가을은 앎의 굶주림을 깨닫게 하고、그 허기는 정신적 영토를 확장하며、그 지반은 개성적인 문화를 잉태시킨다。저 광복의 8월 15일 다음에 온 가을을 흥분된 구호와 감정적 언어로 뒤덮어버린채 우리는 오늘에 이르는 실수를 범하지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하리라。

앎에대한 굶주림을 갖지못한 민족의 생명은 결코 길지못하다。그런 지혜는 없고 뚝심만 있는 씨름꾼과 다름없기때문이다。힘과 지혜의 조화—우리는 그것을 갖추었는지 거짓없이 반성해보아야한다。

질서의 무분별、스포츠의 과열、종교의 광신화、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가슴에 이성의 가을이 없다는 여실한 증명인것이다。우리가 이 부끄러운 수렁에서 빨리 벗어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신속한방법으로는 책을 읽는 길밖에 없다。책속에는 무수한 지혜와 슬기의 길이 있다。배고픔때문에 밥을 찾듯이 앎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책읽기를 생활화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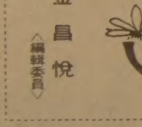
「문예춘추」라는 일본의 잡지가 백만부를 돌파한 것은 10년이 다 되었다。그런데 우리의 지성적인 모든 잡지들은 10년전보다 오히려 그 부수가 줄어들었다。

일본을 경제동물로만 지칭할 수 있을 것이며、우리는 계속 감정적 언어만 낭자하게 뿌리고 있어야할 것인가。우람한 「독립기념관」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것이 아니다。「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냉정해져야한다。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밝히는 등잔을 마련하기위해서 이 가을의 깊은 밤에 한장씩의 책장을 넘기는 인내를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

메아리

모기·돼지·政治

金昌悅 〈編輯委員〉



뇌염에 대해서는 모를 것이 많다。

참고삼아 보건사회부가 펴낸 「전염병관리」란 5백30페이지 책을 펼쳐 보아도 『알 수 없다』『추측한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온다。

뇌염은 빨간집모기(홀렉스모기)가 매개한다。뇌염에 걸린 돼지피를 빨고난 모기가 사람을 물면 뇌염이 옮는다는 설명이다。돼지 역시 모기에 물려 뇌염에 걸린다。

그러면 돼지에게 옮는 뇌염바이러스는 어디서 온 것일까。우리나라같은 날씨에서는 모기가 월동하지 못한다。날씨가 풀린 뒤 새로 발생한 모기가 어떻게 뇌염 바이러스를 지니게 되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한가지 설명은、물론 추측이지만、뇌염바이러스는 새(鳥類) 몸안에서 월동한다는 것이다。이 새의 피를 빤 모기가 돼지에게 병을 옮기며、돼지몸안에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다시 모기를 거쳐 사람에게 전염된다。이와는 달리、돼지 몸에서 겨울을 지난 바이러스가 모기→돼지→모기→사람의 전염경로를 거친다는 추측도 가능하다。뱀·개구리 같은 냉혈동물 몸안에서 바이러스가 겨울을 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요컨대、모른다는 얘기가 되겠다。

한 때 뇌염의 周期說이란 것이 있었다。실제 전염의 양상으로 보아 3년에 한번 뇌염이 크게 돈다고 한것이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이런 현상은 사라졌다。66년 3천5백63명 발병에、9백65명이 죽은 것을 고비로 70년대 들어서는 환자 발생 1백명대、사망 몇10명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벌써 발생이 1천명을 넘고、사망자는 1백명을 육박하고 있다。왜이럴까。이것도 모를일이다。

보사부의 설명은、역시추측에 불과한것이겠지만、금년 날씨가 모기번식에 알맞았던 것、뇌염치료를 無料化했기 때문에 발생신고가 많다는 것등이다。

이 설명이 사실은 더 큰 의문을 부른다。뇌염발생신고가 늘었다는 말은、70년대 뇌염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가 많았다고 自認한 것이다。그냥 신고가 있고、없고의 문제가 아니라、혹시 「擬似」요、「眞性」이요 하는、「專門家」다운 조작은 없었더냐는 의심을 떨칠수가없다。

날씨가 모기번식에 알맞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당초 90만명을 예정했던 예방접종을 4백60만명으로 늘렸다는 것이 보사부가 덧붙이는 말이다。그 대책은 옳았다고 생각하지만、4백60만이란 숫자는、그만한 백신을 배정했다는 것일뿐、실제 접종이 얼마나 됐는지는 보사부도 모를것같다。地方에 발이없는 보사부가 「접종완료」보고의 실속을 확인할 길이 있었을까。이런 의문의근거는 뇌염접종을 한번 맞는데 2천5백원이나 든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다。

뇌염에 대해서 모르겠다는것은、어려운 疫學얘기가아니라、바로 이같은 防疫태세에 관한 것이다。

돼지는 뇌염에 걸려도 죽지않지만、어미 돼지는 流産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지금도 어미돼지에게는 예방접종을 한다。그 수가 약 30만두。이것을 올해는 90만두로 늘렸다。보사부의 협조요청에 응한것이란 농수산부의 말이다。

그러나 완벽을기하자면 우리나라 모든 돼지(현재2백10만마리)에게 접종을해야하고、그러자면 새로태어나는돼지를 합쳐 해마다3백50만마리 규모의 접종사업을벌여야한다。약값만 한마리 3백80원씩 13억원 이상 든다。

이쯤으로、다음 얘기는 뻔하다。예산이없는것이다。

도대체가 보사부의 금년도뇌염 접종약값은 2억원뿐이다。내년도 예산안에는 여기10만명 접종분 4천만원이 추가된다。이래도 괜찮을까하는것이、뇌염을 모르겠다는 참뜻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린이들의 뇌염접종을 늘려야 한다。모든 돼지에게 접종을 못할망정、뇌염 多發지역을 戰略的으로골라 접종규모를 늘려야 한다。더하여 철저한 疫學的연구가 뒷받침되어야한다。올같은 뇌염 불안을 그냥 둘수는 없다。

사리가 이렇게 뻔 하므로、기대할 것은、여성 정치인인 방역주무장관의 정치력이다。예산당국과의 재절충、협조전에 그치지 않는 지방행정·축산행정과의 협조등이 바로 정치의 場이 아닌가。될지하지도 않은 돼지 사육의 마을單位 集團化 따위는 그만두고、뇌염환자의 의료비、후유증과 인명피해등으로인한 사회적손실 이나、한번 계산해보기 바란다。

海外토픽

男性직업가진 여성離婚많다

美취업자 9백84명대상 調査서

자기와 동등한 직위를가진 남성과 결혼하거나 남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은 다른 여성직업종사자들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다고。

뉴욕주립대학의 윌리엄·필리버교수와 신시내티대학의 대너·힐러교수가 9백84명의 취업여성을 상대로 실시、美사회학협회연례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편과 동등한 지위의 직업을 가진 여자의 경우 직업을 포기하거나 남편보다 낮은지위의 직장으로 옮기지않으면 여성고유의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이혼할 확률이 훨씬 높은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샌프란시스코=UPI】

宇宙침략 게임몰두

★남성들結婚후 症勢사라져

결혼을앞두고 전자오락실을찾아 스페이스·인베이더(우주침략자) 게임에 몰두하는 남자들이 결혼후에는이같은 증세에서 벗어난다고。

3명의 의사로구성된 美듀크대학 의학연구진이 美의학협회지최근호에 발표한 보고에따르면 결혼을앞두고 수주간이나 스페이스·인베이더 게임에 몰두했던 남자3명에 관한 연구결과 이들은결혼을 앞두고 수주동안 평소보다 4배의시간을 전자오락실에서 보냈는데 어떤사람은 약혼자와 만나 자신의 전자오락솜씨를보여주었으며 다른 한사람은『몇차례 더게임을 즐기기위해』신혼여행출발을 1시간 연기하기까지했다는것。

의사들은 이들이 스페이스·인베이더에 몰두하는것은 결혼을 약속한데대한 불안때문인데 결혼후에 이같은 증세가 없어지는것은 결혼에대한 갈등이해소된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설명。【시카고=UPI】

서로자기아내主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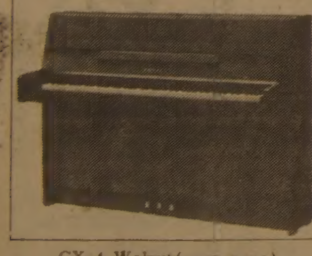
★결투서1명죽고 1명重傷

한 여자를 사이에 놓고 두 남자가 서로 자기의 아내라고 주장하다 결국결투를 벌여 한명은 죽고 다른한명은 중상을입었다고。

자카르타의 포스·코타지는 최근 인도네시아 西자바의수방에서 아크마드란 남자의부인인 니·다쉬이 살림이란남자와 재혼하자 이같은 결투가 벌어져 살림은 사망하고 아크마드는 부상했다는것。【자카르타=AP】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 9월1일～9월30일

10～30% OFF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DX300 $3,4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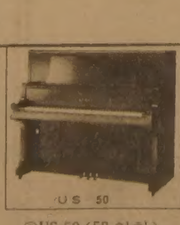
DX80 〈Reg〉 $1,595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3F(50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 50 (52 인치) Reg. $5,9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 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주간女性 한국일보

共産圈동포 400만명

中共2百20萬, 蘇에 40萬으로추산

현재 공산권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수는 대체로 총2천2백여만명에 이르고있는것으로 推定되고있다. 이중 북한 虐政에 시달리고있는 동포는 1천8백여만명(80년현재) 또 中共에 2백20여만명, 소련에 40만명이 살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밖에 東歐圈등에도 극소수가 거주하고있는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길이없다.

中共당국이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韓人의 수는 1백68만명이지만 여러가지 추정으로 보아 그보다는 훨씬 많아 최소한 2백20만은 넘으리라는 것이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趙淸)측은 2백50만명까지 추정하고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中共의 韓人을 당국의 추정대로 2백20만정도로 잡을때 在外한국인은 모두 4백20만명으로 中共·소련만의 공산권거주 한국인은 전체 在外한국인의 62%에 이른다.

이들 공산권거주 한국인동포는 日帝식민통치하에서의 핍박과 가난을 피해, 2차대전중의 강제징용으로 故國을 등진사람들과 그 후예들이다. 절절히 맺힌恨을 가슴에 품고 異域에서 살아온 우리의 동포들이다.

中共에 사는 한국인들은 압도적인 다수가 滿洲의 「東三省」에 집중돼있다.

中共이 지난해5월 발표한 「中國少數民族현황」에 의하면 78년현재 「朝鮮族」은 1백68만명으로 지역별로는 吉林省에 1백4만, 黑龍江省에 43만, 遼寧省에 17만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각 지역의 분포숫자도 中共의 발표보다는 훨씬 많을것으로 당국은 보고있다.

「東三省」인 吉林省, 黑龍江省, 遼寧省에 살고있는 韓人들은 대부분 고국의 문화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가장 숫자가 많은 吉林省의 延邊朝鮮族自治州에선 한국인 주석이 한국인들을 리드하고 있다. 吉林省내엔 우리말로 된 신문도 있고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자체교육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생활도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吉林省에선 韓人들이 2백50만마리의 소를 기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특산물인 牛黃淸心丸은 北京, 홍콩製보다도 뛰어나다고 한다.

延邊自治州에선 또 한글로 된 문예잡지 「아리랑」을 발간하고 있는데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냄새도 안나고 그들이 한국방송을 많이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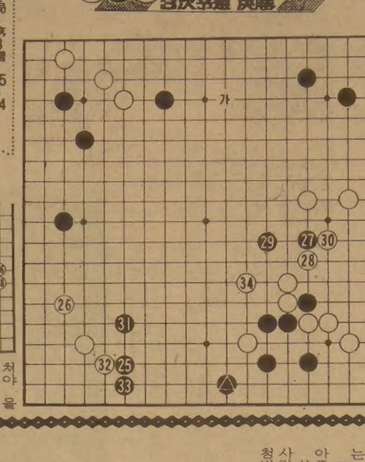
40만명에 이르는 소련내 동포들은 極東지역의 카자크공화국, 우즈베크공화국, 키르커즈공화국, 투르크맨공화국등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있다. 사할린에만 4만5천가량의 韓人들이 살고있는데 韓人 2、3세들은 모두 한국말을 잊지않고 잘하고있다고 한다.

【趙聖鎬기자】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2局 第3譜 25~34 (각4시간·덤5집반)

黑 (初段) 崔珪昞
白 (6段) 徐能旭



白、好機를 놓치다

徐6단은 현재 曺薰鉉·徐奉洙의 뒤를 바짝좇는 後起의 맹장으로 너무도 유명하다. 다만 투지가 좀지나쳐서탈이지만 그런대로 棋力이 날로 충실하여 각종타이틀戰은 거의 단골멤버. 名人戰도 제10기부터 등장하여 4년간이나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작년 한때의 부조로 본선에서 탈락했으나 「다시 복귀하고야 말겠다」는 투지는 대단했다.

그래서 이바둑이 마지막 결승인데 徐6단은 5살 연하인 「가공할후배」의 의표를 찔러 능기인 혼전을 피하는가싶어 보인다. 黑25는 하변▲표가 있는곳이므로 반대쪽인 26자리에 걸쳐야 바른방향이라지만 그보다 黑27이 안됨과 만에 못한 수였다.

白이 28、30으로 유약하게 건너갔기에 망정이지 만약 참고도와같이 白2로 포위했더라면 어찌되었을까. 徐6단은 黑3이하로 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이과정에서 白에게 어떤 奇手를 당할는지 모르고 黑19까지 쌈지를 뜨며 살더라도 이 다음 白이 실전보의 「가」의곳을 두게된다면 그것으로 白의우세가 확정된다.

白의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셈인데 당장은 白32의 응답조처로 34를 두게되어 다행이다. 【一九】

在美동포女性은 고달프다

職場·家事 함께 돌보는 무거운 生活

海外女性

「교포여성들의 미국이민생활은 너무 고달프다」 칼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한국학연구소」(소장 유의영박사)가 최근 발행한 책자 Koreans In Los Angeles는 LA지역 한국인주부의 직장취업률이 미국인주부의 48%보다 15·4%나 높은 63·4%나 된다고 지적, 「교포여성들이 남성못지않게 직장일선에서 생계를 위해 분투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교포여성들이 직장과 가사를 동시에 돌봐야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있어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하고 자칫하면 크게 건강을해칠 환경속에 놓여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있다.

이통계에 의하면 남가주지역의 교포가정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취업, 남편은 88·1%, 부인은 63·4%가 풀타임직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77·3%이며 자녀없는 부부근로자도 12·4%에 이르고있다.

또한 이같은 교포가정의 약40%가 직접 비즈니스를 경영하고있는데 그중 3분의 1정도는 남편보다 주부가 경영자로 나타났다.

유의영교수는 교포여성 현황은 LA지역한국이민중 김씨성을 지닌 교포가정 2백83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결과 얻은 통계라고 밝혔다.

이조사에서 교포가정부부 모두 학사학위소유자가 58·3%, 고교졸업자는 21%로 한국인의 일반가정 학력수준이 높음을 나타냈다.

1970년 미국인구센서스에서는 25세이상 한국이민중 36·3%가 대학졸업자로 나타났는데 당시 일본인은 15·9%, 중국계 25·6%, 필리핀 22·5%, 흑인계 4·5%였었다.

교포주부가 경영하는 비즈니스에는 봉제업소가 으뜸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로 취업한 직종도 봉제업소가 21·6%로 가장많다.

한편 교포가정에서 토요일까지 직장에 근무하는 가정이 33·2%, 일요일까지 일하는 가정은 16·2%로 나타나고있다.

파리高級衣裳店에 고객줄어

패션 쇼도 不況, 비용 못뽑아

◇최근 파리에서 발표된 의상。전에는 쇼가 열릴때마다 돈많은 여성들이 다투어 옷을 사갔으나 요즘은 쇼 비용조차 뽑기가어려울 정도로 발길이 뜸해졌다。

큰손님은 아랍國서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들의 오리지널작품만 골라입던 돈많은 고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있다。

다음해의 유행을 점치는컬렉션이 열리면 단골들이 사입는 옷값만으로도 패션쇼에 소요된 비용을 뽑고도 적잖은 수입을 올릴수 있었는데 지금은 꿈같은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호황을 누릴때는 약5천명의 극성 고객들이 줄을 이었으나 최근엔 1천명이 채못되어 값비싼 모피제품을 빼고도 45만달러(약3억4천2백50만원)가 드는 쇼비용조차 뽑을수가 없게되었다。

파리고급의상조합장 자크·무클리에씨는 현재의 가장큰 고객은 석유로 떼돈을번 아랍 제국의 여성들이고, 美國에서온 직업 바이어나 개인 고객은 겨우 20명정도라고밝혔다。그의 주장에따르면 랑방의 컬렉션이열릴때마다 출품된 작품의 99% 이상을 모조리 구입했던 유명한 울워쓰연쇄점 상속녀 故바바라·허튼女史와 같은 고객의 시대는 지나가버린지 오래다。

단골 고객이 엄청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1년에 2번 열리는 파리 하이패션 컬렉션은 여전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지난주에 열렸던 가을·겨울을 위한 컬렉션엔 세계각국으로부터 6백~7백명에 이르는 패션전문기자와 사진사들이 파리로 몰려들었고 이들의 활발한 보도 덕택에 기성복 액세서리 란제리 향수와같은 고급의상점이 제작한 기타제품이 많이팔려나갔다。

또 의상점이 발급한 패턴도 불티나게 팔려 엄청나게 비싼 마춤옷 대신에 패턴을 구해 직접 옷을 만들어 입는 여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무클리에씨는 파리고급의상조합의 23개회원의 금년도 상반기 총매상액이 지난해같은 기간에 비해 20%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고급의상의손실에도 불구하고 매상고가늘어난데는 디자이너 각자의창의력과 제품의 다양화, 높은 경영수완, 수출의증대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81년도 프랑스패션사업의 총매상고는 16억달러(약1조2천억원)이고 이중 의상과 액세서리 판매액이 9억달러(약6천7백50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가 미용제품이었다。

美홍일점判事 有名稅로 바쁜나날

◇

FDA、다이어트藥販禁…항의일어

◇美國연방대법원의 홍일점 판사인샌드라·오코너여사。최근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있다。

무난한 評點받아

○…이름도 잘 알려지지않았던 아리조나주의 항소법원 여성판사 샌드라·오코너가일약 미국최초의 연방대법원판사로 임명되어 화려한 각광을 받기 시작한지도 어언 1년이 되어간다。

작년 10월5일취임한 오코너판사는 그동안 수많은 축하편지를 받았으며 자필서명요구에 응하거나 연사로 초청을받아왔다。

·사회적 명예가 권력만큼이나 높이 대우를 받는 워싱턴사교계에서 오코너판사부부는 일급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오코너판사도 골치아픈 유명세를물기시작했다。식료품가게에 들르면 으레 사람들로부터 자필서명을 요청받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계산대앞에서 오코너판사의 바로 뒤에 서있던 한남자가 오코너판사의 쇼핑카드를 넘겨다보고 깡그리 물건들을 기억해두었다가 친구들에게 즐거운듯이 모두 알려주었다。

전통적으로 연방대법원판사들은 사교적 모임에서 다른 동료들과 악수를 하거나 동료의 부인에게 키스를 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홍일점 판사를 동료로 맞이하여 분위기가 달라진 대법원판사들은 부심끝에 오코너판사 부부와 키스는 하지않고 모두 악수를 하기로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신출내기 초년병인 오코너판사는 초년병답지않게 전혀 수줍음을 보이지 않고 담대히 자기주장을하며 판결에 임하고있다。

종종 대법원장 워렌·버거와 보수파 행동주의자인 윌리엄·렌퀴스트판사를 향해 불쾌한듯이 언성을 높일정도다。

버거、렌퀴스트、오코너의3인조는 지금까지 84건의 재판에 함께 참여했으며 이중 62건의 재판에서 세사람이모두 똑같은 견해를 취했다。

이같은 판결태도는 레이건대통령이 오코너판사를 연방대법원판사로 선정했을때 이미 바랐던 것이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코너판사는 대법원판사로 임명되기전에 벌써 버거와 렌퀴스트 두사람을 잘 알고 있는 처지였다。

消化안돼도 잘팔려

○…지난주 美國연방 식품약품관리국(FDA)은 다이어트 정제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강낭콩을 원료로 만든 다이어트 정제는 소화방지제역할을 하므로 식욕을 떨구지않고도 몸무게를 줄여준다。

그러나 이약을 남용하면구토、설사가 일어나고、심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있다。

뉴욕시 브롱스베테랑 병원의 빅토·허버트박사는 이약의 원료인 강낭콩에있는 소화방지 화학품이 소화를 안되게하여 박테리아가 들끓고 대장에서 가스를 생성하기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정제는 날개돋친 듯이 팔리고있다。

한 건강식품 도매상의 멜바·윌리엄스여인은 만족하게 음식을 먹고도 10파운드(4.5kg)의 체중을 줄였다고 만족해한다。

한편 제조업자들은 FDA를 고소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 FDA도 이에 굴하지않고、위반자에는 재고압수및 벌금 징역형도불사하겠다고 강경자세를 보이고있다。

광고문의 533·2361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0SQF되는 새로 단장된 빈 상점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상점이 있는 대형 3 Bedroom달린 벽돌건물 사업과 함께 매도, 빌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4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ilding도 따로 팔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옵션, $50,000 다운, 가격 $145,000

★BAKERY
Hunts Bakery: Shopping Center내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 $1,100, 5년+5년, 가격 $40,000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400, 4년, 15년옵션, 월 $5,000 Net로 파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nu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및 Hobby Claft Shop 몇개 있음.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고급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황용현 286-1548(R)

이현영 686-0207(R)

강정숙 244-8918(R)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요크한국인한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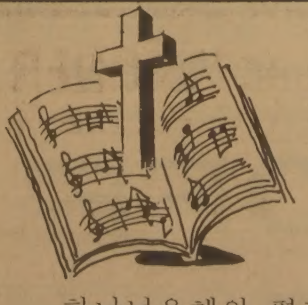
학생모집 공고

요크 한국인 한글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모집을 하오니 타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하여 등록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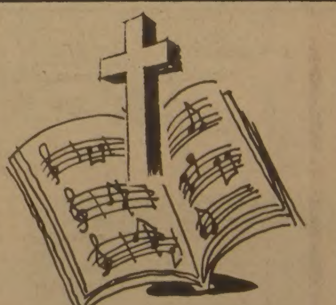
◉장 소 : ROSELAND PUBLIC SCHOOL (Jane & Eglinton • 1 block South)

◉등록시일 : 1982년 9월 18일까지
◉개교일자 : 1982년 9월 17일까지
◉연락장소 : 247—5623 Mrs. 윤은자

요크한국인한글학교
교장 김 춘탁



창립10주년 기념음악예배



하나님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중앙교회에서는 창립1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촐한 기념음악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영광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저희와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아 래

곡 명 : Joseph Haydn 작곡
천 지 창 조 (전Ⅲ부중 I,II부)
출연진 : Soprano : 이영숙·이은경 합 창 : 중앙교회 성가대
Tenor : 유 진 지 휘 : 이성민
Bass : 양하옥 반 주 : 유선애
일 시 : 1982년 9월18일(토) 오후 7 : 30분
장 소 : 토론토 중앙교회
502 Bathurst St. (Bathurst & College)

토론토 중앙교회 당회장 정관일 목사 및 교우일동

일하며 생각하며

메마른社會지만 "댓가 바라지않는 사랑"만 있다면…

鄭 華 子

<코스디(株)理事>

고등학교 시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것이 고역이었던 나는 어른이되면 월급장이는 절대 안 하리라 다짐했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경영자로서의 나의 미래를 설계해보곤 했었다. 물론 당시 내 처지로는 경영자는 커녕 말단 월급장이자리도 아쉬운 처지였지만.

어쨌든 『월급생활은 2년 이상은 안하겠다』고 자신에게 변명하며시작했던 것이 어언 12년이나 됐다. 새삼 감회가 깊다.

대학도중에 잠시 맛 보았던 1년여의 경험을 합치면 나의 직장생활 경력은 만13년. 그것도 말단 사무원에서 부장으로 그리고 한달전에 理事로 승진되기까지 (물론 아직도 월급장이 이사에 불과하지만) 직장인으로서의 온갖 애환을 겪어봤다. 안하무인이던 초년생시절이 지나고 지금은 젊은 사원들의 모습에서 내 올챙이 시절의 복사판을 보는것 같다.

웃사람을 받들고 따르는 것은 아부라는 착각에 빠져 나보다 서열이 하나라도 위인 상사에게는 비판적인 눈으로 내가 무슨 영웅인양 아랫사람들의 대변자역할을 도맡아하는것을 훌륭한 직장인으로서의 도리라고 믿고 또 실천해왔다.

지금 우리회사 젊은 사원들에게서 그런 과거의 내 모습을 본다. 그러나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잘못된 영웅심리에서 비뚤게 행동하는 사람, 마음에도없는 불평을 하는사람, 또 앞에서 『예』하고 돌아서서 선동하는 사람등 각양각색의 사원들을 볼때 슬퍼진다. 본디 「내리사랑」이란 말은 있어도 「치사랑」이란 말은 없다니까 웃사람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언젠가는 그들이 철들날을 기다리면 된다고들 한다.

그러나 더욱 슬픈것은 동료간의 헐뜯음이다. 몇명 안되는 동료끼리 같이 배를 맞춰가며 공동의 불평으로 맞장구를 치다가도 다른 자리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친구를 깎아내리는 얄팍한 생리가 참으로 나를슬프게한다.

우리민족은 地政學적인 이유에서인지 반만년의 역사에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에 시달려 왔다. 이런탓으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풍조가 생겼다는 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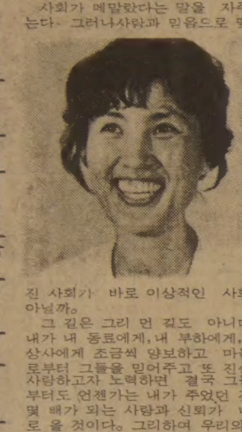
좀더 긍정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는 자세, 아흔아홉번 속고도 이번만은 하고 또 한번 믿어보려는 신뢰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쉽다.

사회 초년병 시절, 업무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으면 그것이 능력의 다인줄 알았었다. 그러나 그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것을 알았다.

『부하직원들을 사랑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엄히 다스리면 그 마음이 반드시 통한다. 하나 사랑이 없는 꾸중은 반감을 일으키게 한다』

이것은 자매회사의 어떤 간부의 말이다.

사회가 메말랐다는 말을 자주듣는다. 그러나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사회가 바로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그 길은 그리 먼 길도 아니다. 내가 내 동료에게, 내 부하에게, 내 상사에게 조금씩 양보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믿어주고 또 진실로 사랑하고자 노력하면 결국 그들로부터도 언젠가는 내가 주었던 것의 몇 배가 되는 사랑과 신뢰가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치사하고 하찮은 일로 낭비하는 일 없이, 보다 값진 것에 바칠 수 있을 것이다. 단 성급해서는 곤란하다.

내 노력에 대한 반응이 더디다고 실망하면 안 될 것이다.

반응이 더디다는 것은 돌아올 사랑과 신뢰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사람이란, 댓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라지 않던가.

우리가, 가까이는 일본을, 멀리는 세계를 앞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각자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닐까한다.

◇서울지역 소형 서민아파트 시세

(단위=萬원)

지역 지구	아파트명	평형	시세
千戶 지구	강동시영(암사동)	13	750~950
		15	800~1,000
	길동시영	13	850~900
	둔촌住公	16	1,400~1,600
		18	1,500~1,800
	길동진흥	20	1,500~1,800
蠶室 지구	住公	13	950~1,200
	가락시영	13	900~1,000
	잠실시영	13	850~1,150
		14	1,000~1,350
		17	1,200~1,500
永東 지구	AID 극동	15	1,300~1,600
		16	1,300~1,700
	開浦住公	11	850~950
		13	950~1,050
		15	1,000~1,200
		17	1,200~1,400
	도곡주공	13	1,000~1,250
永登浦 始興 지구	우진(신길동)	17	1,300~1,600
		20	1,600~1,900
	철산住公	13	800~1,000
	한양시흥	16	1,500~1,900
	독산미도(한보)	17	1,400~1,700
		20	1,800~2,100
	시영강남(독산동)	13	950~1,000
		15	800~1,200
漢江	공무원	12	1,000~1,350
		15	1,150~1,650
	원효산호	14	1,300~1,600
江北	월계시영	11	700~1,000
		13	750~1,100
	월계신동아	16	1,600~2,100
		18	1,800~2,250
	장안평시영	10	650~1,000
		14	900~1,400
江西	발산住公	13	800~1,050
	우신	17	1,300~1,600
		20	1,500~1,900
	화곡住公	13	700~950
		17	1,000~1,300
		20	1,500~1,800
	등촌동신	19	1,600~2,000
盤浦 지역	반포住公	22	2,200~2,700
	住公	16	1,600~2,200
		18	1,800~2,400
	반포한신	18	1,800~2,400
果川	住公	13	750~1,000
		15	800~1,100
		17	950~1,400
		18	1,600~1,900

하고픈 마음

백로마을

얼마전 외사촌 언니의 약혼식이 있어 경기도 여주에있는 외갓집에 내려갔었는데 새삼 아름답고 신선한 시골생활을 느꼈다.

세상에 어느 농촌치고 둘러 흐르는 개울 하나 없겠으며 이제 패일때가되어 빳빳이 고개를든 벼들의일렁임이 없으랴마는 어딜석에 내려가 보고 이제 다시 보는 외갓집 동네는 과연 신선이 살듯한 청초한 백로 마을 이었다. 논두렁에 긴 목을 드리운 백로 한마리가 꺼억 꺼억 소리를 내며 날아오르고, 개울가에 몇마리가 있는것같더니 놀랍게도 조그만 야산 숲속엔 몇십마리, 아니 백마리도 넘을것 같은 백로떼가 서식하고 있었다. 짙푸른 녹음속에 날아든 새하얀백로떼들이 하얀 산을 만들고있다.

물가엔 아름다운 물총새와 『또르르 꾀꼴』하는 이름모를 새들도 있었다.

누가 우리 나라가 공해에 오염되고 있다고 슬퍼했을까. 예부터 백로가 사는 마을은 부촌이라 하였고 실제로 그 새들은 그런 곳을 찾아 들었다. 그곳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은 백로에게 개구리며 먹이를 잡아다 주고, 부상을당한 백로를 서로다투어 치료해 준다고 하니 새삼 서울에서 공해타령만 하던 내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변선희·서울 도봉구 상계동 169~446】

그들도 모르던 自畵像 정확한 分析에 감탄

트랜지스터에서 미니庭園까지 日本人은 「縮小」의 天才

日本서 큰 波紋 일으키고 1년만에 歸國한 李御寧교수

문학평론가 李御寧씨 (50·梨大교수)가 日本에서 「縮小指向文化」 바람을 일으켜놓고 귀국했다. 저팬·파운데이션 초청으로 지난해봄일본에 건너가 韓日文學비교연구를 하고있던 李씨는 지난1월 「縮小指向의 日本人」(學生社刊) 이란 책을 출간, 일본 독서계에파문을 일으켰다. 이책은 불과 5개월 사이에16판10만부가 나가고 英國에서 번역을 준비하고 있을정도로 일본인들의 관심을끌고있다. 1963년 「흙속에 저바람 속에」로 한국독서계를 뒤흔든지 약20년만에 日本을 뒤집어놓은것이다. 그의 소식을접한 국내의문화계인사들은 「역시李御寧이다」며 그의 예지가 나이와상관없이 살아 있음을 기뻐했다.

『「흙속에…」나 「縮小指向…」이나 한국민의 의식구조를분석한점은 마찬가지지만 그 접근법은 달랐지요. 「흙속에…」는 우리의일상을 관찰한것이고 「縮小…」는日本의古文學을 분석한것입니다. 전자가 뚜렷한 방법론이없는통찰이라면 후자는 조르즈·풀레의 「상상력의 축소와 확대」의이론에 입각한 엄격한방법론을 택한분석이었읍니다』 31일돌아온뒤 바쁜일정을보내고있는 그는엄격한방법론때문에 더러는 「논리의비약」이라는평도 없지않았지만 일본인들 자신도 모르던모습을 일깨워주었다는점에서 보람을느낀다고말했다.

◇日本人들의 의식구조를 파헤친 「縮小指向의 日本人」을 日本서 출판, 화제를 모으고 돌아온 李御寧교수.

日本의 學生社가 출판한「縮小指向의 日本人」은 모든 문화를 수축시키고 오무려뜨려서 수용하는 日本人들의 성품을 파헤친 책.

한국인들이 묵직한밥그릇으로 밥을 먹는것과 달리, 공기를 개발하여 놓고 먹는것이 아니라 들고먹는 것이나 歐美에서 개발한 라디오에서 한걸음더나아가 트랜지스터를개발하여 들고다니는것등. 또 컴퓨터를 개발한것은 미국이지만 일본인들은 이를 줄여 수첩같이 포키트에 넣어다닐수있게했다. 그것은 테이프레코다, 비디오, TV등도 마찬가지다.

李씨의 눈에 비친 日本人들의 縮小指向은 이런 일용품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연마저 축소하여 그들 특유의 정원을 가꾸었으며 神까지도 미니化하여 神社를 축소한 가미다나(神棚)를 집안에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참배하고있다.

그는 日本人들의 縮小指向에 감탄할뿐아니라 이것을 지켜나갈것을 제시하고있다. 그들이 축소지향을 버리고 확대지향으로나가는것은 일단 自己否定이며 결국은 이웃나라들을 괴롭히고 스스로를 파멸시키게된다고. 「잔모래가 바위가 되도록」이라는 日本國家 기미가요의한귀절같이 그들이 大國主義를 지향하면 豊臣秀吉의 대륙침략이나 韓日倂呑및 태평양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는日本人의 확대지향이 2차대전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日本상품으로 세계시장을 정복하려는 이들의 경제대국주의속에 남아있음도 지적하고있다.

이 책에대한 日本人들의 관심은 거의 폭발적이었다.

지금까지 다른 외국인들이쓴 日本論에 관한 책보다 훨씬 많이 팔려나간것이 그좋은 예. 日本의 경제가 팽창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의日本論은 무수히나왔다. 처음에는 외국인의 눈을 빌어 스스로를 본다는데서 호기심을 끌었지만 그 흥미는 그들의 콧대에 반비례해 지금은 싸구려 기행문 취급이나 받고있었다.

『歐美人들의 日本論은 피상적일수밖에 없지요. 밥과 빵을 비교하는 식의 분석이니 그 日本論은 韓國論도 될수있고 中國論도 될수있는 東洋論정도가 아니겠읍니까?』

이에비해 李씨는「밥」(공기밥)과 「밥」(그릇밥)을 비교했다.

日本체류1년이 못됐다고하지만 그는 日帝강점치하때 교육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그의 천부적인 예지가 가미돼 날카로운 日本論을 쓰게 된것같다.

이 책에 대한 日本지식인들의 반향은 10만부라는 판매부수만으로는 설명할수없었다. 그 내용을 승복하건 거부하건「縮小指向」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뇌리에 깊숙이박혔다.

5월26일자 마이니찌(每日)新聞은 전면특집「記者의 눈」을 싣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부의 取違孝昭기자는 李씨의 저술과는 상관없는 도시계획기사에서 縮小指向의 이론을 도입하고있다. 그는 東京의 비대화에 바탕을 둔 東京도시계획을 위한 장기구상을 반박,『巨大化指向은 멸망의 길』이라는 큰 제목밑에 李씨의 저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앞서 西日本新聞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訪日중이던 4월19일자에서『미테랑 대통령이 日本이란 나라는 불가사의한 나라라고 했는데 그가「縮小指向의 日本人」을 읽었더라면 불가사의한 나라라고만 하지는 않았을것이다』고 했다. 이 칼럼을 담당한 논설위원은 또 다음날 같은 난에서『내가 외무성의전과장이라면 미테랑 대통령부인에게 부채와함께「縮小…」를 증정했을것』이라고 쓰기도했다.

5개월간 10만부 나가… 韓·日文化교류에 새章 열어

사회심리학자인 井上忠司교수(京都大)는 주간 아사히저널에서『이 책은 단숨에 읽어지는 책이다. 그러나 단숨에 읽어서는 안되는 글이다』고 썼다. 그는 李교수가 문학에서 적절히 소재를 찾아낸데 감탄했다.

이밖에도 日本의 간행물들이「縮小指向…」을 다룬 기사는 헤아릴수없이 많다. 갑작스레 유명인사가 된 그는 각종의 강연회에 불려다니면서 특유의 話術로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자타가 공인하는 日本최고의 엘리트양성기관松下政經塾도 그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앞으로 다른 한국인교수들도 일본에 오거든 여기서 강연하게해달라』고 부탁하기도했다.

따라서 이책은『화끈한 韓日문화교류를 다룬것이라 할수있다. 열등감에 젖어있는 在日동포들의 눈에 한국의 존재는 권투와 축구의 차원을 벗어나지못하였다.

그러던 판에 李씨가 日本의 매스컴을 화려하게 탄것은 새로이 한국인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셈이다. 한국인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우동가게를 운영하던 한 재일동포는 李씨가 TV에 나와 연설하자 흥분한 바람에 한국인임이 폭로됐는데『한국인을 야만인같이 취급하던 日本에서 그의 등장은 가장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縮小指向…」의 인기는 그가 3년전 日本서 내놓은「恨의 文化論」으로도 파급되어 再版을 내놓기도했다. 이책은「흙속에 저바람속에」를 수정번역한것으로 역시 學生社에서 내놓은것이다.

李씨는 내년 1월중 日本특유의 短詩「俳句」에관한 연구서를 내놓을예정이며 또 韓日의 의식구조를 비교하는 책 「春香傳과 忠臣藏」의 출판계약도 체결했다.

『문화는 공기와 같은것입니다. 아무리 막으려해도 그것은 이웃으로 흘러가고 흘러오게마련이지요. 韓日의 문화교류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할것입니다. 日本人들에대한 우리의 평가를 떳떳이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韓日관계정립을 돕는길이라 생각합니다』

【梁 주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14>

朴婉緒 作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⑰

남자가 돈을 치르면서 주인여자에게 뭐라고수군댔다.

『쯧쯧 가엾어라』

남자와 주인여자가 거들어서 오목이와 아기를 내실로 데려다가 눕혔다. 아무 생각없이 비틀비틀 안방까지 따라온 오목이는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주인여자가 포대기를 꺼내 잠든 모자를 포근히 덮었다.

『아무 걱정말고 푹 자요. 내 그녀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그못된 버릇을 고쳐놓고 말테니까』

자기도 과년한 딸을 둔 남자는 소박 맞고 쫓아온 딸을 위해 복수를 다짐하는 친정아버지처럼 비감하고 씩씩하게 부르짖었지만 오목이는 알아듣지못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아기의상태로 퇴화한 것처럼 무방비상태로 순진하게 새근새근 잠들었다.

그녀가 실컷자고 깨어났을때 마침 아기도 깨어나서 칭얼대고 있었다. 음식점으로부터 돌아앉은 내실은 아늑하고 조용했다. 오랜만에 사람 살만한 곳에 누워있다는게 꿈처럼 믿기지가 않았다.

일환이가 그들 모자를 지켜 보고 있었다. 얼마만인가?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잠이 덜 깬 비현실감때문인지, 그의 구부정한 어깨와 늘어뜨린 머리가 키큰 전주위에 매달린 수은등 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아득한 거리감에 항거하듯 벌떡일어났다. 그가 무너져내리듯이 가까와졌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그의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그의 양어깨를 짓누르고있는 쇳가루같은 피곤이 안스러워 그녀는 비굴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터는 시늉을했다.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그가 가까스로 웃었다. 그의 뻐드렁니가 드러났다.

『다시는, 다시는 안 놓칠래요』

오목이는 그의 가슴을 쥐어뜯다가 몸을 던지며 말했다.

그가 가볍게 그의 등을 토닥거려주고 떼어놓았다.

그때 그의 표정은 잠깐 스치고 지나간 남남스러움이 너무도 예리하고 청신해 그녀는 아, 하고 비명을 삼켰다. 그리고 얼른 칭얼대는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다.

그녀는 잠시 어쩔줄을 몰랐다. 그의 그런 시선으로부터 아기를 방패삼아 자신을 가리고 싶기도 했고, 자신이 방패가 되어 아기를 지켜야 할 것 같기도 했다.

『그래 그 수밖에 없어. 다신 날 놓치지 말아』

그가 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꼴이 말이 아니죠. 미안해요. 이런 꼴 보여서…』

『내 탓이야』

『정말 너무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신 안그럴게』

『주인 아저씨한테 야단맞았군요?』

『야단맞아 싸지 뭐』

그가 남의 말하듯 덤덤하게 말했다.

『내가 고자질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말로 해야만 고자질인가 뭐』

『미안해요. 그렇지만 안 찾아나설수가 없었어요. 이해해줘요』

『나도 그 동안 당신을 모른척 안할수가 없었어. 그날 말야, 이 녀석이 태어나고 첫출근한 날 말야. 나올땐 그렇게 못되게 굴고 나왔지만,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역시 기분이 좋더구먼. 나도 애 아범이 됐다」. 그것도 첫아들이 어디야? 혼자서 싱글벙글 하면서 출근했지』

Richard Y.K.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주택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챠드·왕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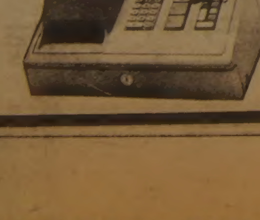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냉면
짜장면·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일요일은 휴업
☎ : 532-0602 김 신우

Pender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뇌염 防疫예산 1人當 60원꼴

그나마 소관部處도 2원화 직원모자라…豫防접종 부진

올해 總6억원뿐…절대부족

일본뇌염방역비가 태부족이다. 11일 현재전국적으로 뇌염증세환자가 모두 1천2백82명 (사망97명)이나 발생, 지난 68년이래 최고 기록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보사부는 이같은 원인이 ◆방역예산의영세성 ◆방역체제의 2원화 ◆방역요원의 절대부족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같은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에도「뇌염파동」은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11일 보사부에따르면 올해 전체방역예산은 77억5천만원 (서울7억5천만원·지방70억원)인데이중 뇌염방역비는 고작 6억원뿐이다. 그것도 중앙에서 2억원, 지방에서 4억원인데 지방4억원은 그나마 내무부소관이다. 이처럼 방역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바람에 올해 뇌염이많이발생했던 호남과 충남지방의경우 접종실적이 도시는65.2%, 농촌은 절반에도 모자라는 41%에 그쳤다 (민간병·의원접종자 90만명은 제외).

이에따라 보사부는 매년 최소한의 예방접종[illegible]에 필요한 예산만도 56억5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는것.

올해 확보된 방역 소독비는 취약지소독약품비명목으로38억원인데 뇌염만이라도 방역다운방역을 하려면 약1백여억원이 필요하다는것이 보사부당국의 설명이다.

또올해 뇌염백신을 맞아야할 대상 어린이 (3~15세)는 전국적으로 약1천1백만명이다.

올해 실제 배정된 예방부사는 4백60만명분으로 필요량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같은 방역비 (모든 질병 전체대상)의 절대액 부족은 선진국과 비교해볼때 두드러져 79년기준으로 한국이 국민1인당 60원인데비해 일본이 1천6백28원, 미국이 2천9백75원으로 선진국방역비가 한국보다20~30배많다.

또 방역사업을벌일때 지시와같은 보사부가, 예산과 인사를 내무부가 나누어맡고있어 손발이안맞는 어려움도있다.

특히 일선 시군 방역계에는 1~2명의 직원밖에 없어 소독때는 일용잡급직을 활용하게돼 현실적인 소독실효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현재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요원수는 5백여명 뿐이고 동원 가능한 인원을합쳐도1천7백83명에 불과하다.

한편내년도 뇌염방역으로 보사부가 확보한예산은 약2억5천만원으로 올해보다겨우5천만원이 많은것인데 내무부의 지방방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고있다.

따라서 내무부 방역비가현저히 증가하지않는한 내년도 뇌염방역은 올해수준에 머물수밖에 없다.

또 완벽한 뇌염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간숙주인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예산도 확보돼야 하는실정인데 금년에는 겨우 90만마리에 접종했을뿐이다. 【金[illegible]기자】

전국 腦炎환자 1천2백82명

작년3倍 97명死亡

전국의 뇌염환자는 11일현재 1천2백82명이 발생, 이중 97명이 사망했다. 이같은 환자수는 지난해의 4백13명보다 3배나많은 숫자이며 충남이 3백97명, 전남1백97명등 부산을 제외한 전국각시도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10월초까지는 발병할것으로 보여 1천2백8명의 환자가 발생, 3백96명이 사망한 68년이래 가장큰 뇌염 피해가 염려되고 있다.

시도별 뇌염발생환자는 다음과 같다.

◆충남3백97명◆전남1백97명◆전북1백88명◆서울1백17명◆경북84명◆경기68명◆경남67명◆충북56명◆대구23명◆제주14명◆인천13명◆강원7명

懸賞金 3백만원 校長부인 被殺사건

서울道峰區 水踰5洞 교장부인 崔玉珠씨 (49) 집 강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1일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제보를하는 시민에게 3백만원의 현상금을 주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崔씨의 선산을 다던 피해자 주변인물들에 대한 수사에서 뚜렷한 용의점을 찾지못한채 수사방향을 단순 강도쪽으로 돌림에따라 용의자나 장물 (일제 캐논카메라2대등) 에 대한 시민신고를 기다리기로 한 것.

경찰은 이에따라 유일한 목격자인 수양딸 尹成淑양 (22)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해품등이 적힌 수배전단 15만장을 전국에 배포했다.

'眞犯은 모두5명' 全州 殺人누명사건

속보=全州孝子洞2街 비사범처리된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 李[illegible]씨 (21·전북金山郡八峰面石旺里)는 11일「당시 범인은 모두 5명으로 범행후 2천7백원을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범인5명중 2명은 아직잡히지않았으며 나머지 鄭모군 (18) 과 朴모군 (17) 등 2명은 이미 다른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임을 확인했다.

李군등은 지난해 6월24일 친구 金군과 함께 全州市孝山洞 부근의 모과수원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던 피해자 朴某군 (20·인쇄공)을 만나 자전거를 세우고 담배를 달라고했으나 朴군이 거절하자 길에 고수방으로 때리고 2천7백원을 뺏은후 반항하는 朴군을 칼로 찔러 숨지게했다는 것.

抗日독립운동 資料발굴

法務部 수사·裁判기록·탄압용 刑具등

기념관에 展示…日帝잔재 法律용어도整備

법무부는 11일 앞으로 건립될 독립기념관에 전시할 독립운동자료를 발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검찰교도소 소년원등 산하기관에 ◆독립운동에 관한 수사및 재판기록 ◆독립운동관련 사진유품 유품 ◆독립투사탄압에 사용된 형구 (刑具) ◆독립투사의 고문·학살등이 자행되었던 사적지등을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교정기관과 검찰이 아직도 사용하고있는 법률용어등 일제의잔재도 찾아내 우리말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자료를발견하면 역사학자 독립운동가등으로하여금 평가케해 중요자료는 그때그때 발표하는 한편 귀중한 자료를제공하거나 찾아낸 기관및개인에대해서는 포상키로했다.

한편 치안본부도 이날일제경찰 36년동안 독립운동가들의 전과기록카드를수집, 사료(史料)로 제공키로했다.

경찰은 구속자의사진등 전과기록은 형이만료된후 10년간보관토록 보존기간이 정해져있으나 독립운동가들의 전과기록은 독립운동사의 중요자료가 될것으로판단, 일괄정리하여 일반에 공개, 독립유공자의 소명자료로 제공하고 독립기념관이 세워지면 넘겨주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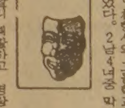
女刑事 1號 서울 泰陵경찰서 朴福實순경

芳年19세…"敏腕위해 노력할래요"

서울泰陵경찰서 朴福實순경 (19·사진)은 11일 꿈에 그리던「여자형사」가 됐다. 서울시내에서 27명의 순경과함께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실시된 수사요원교육을 이날 마치고 우리나라 최초의「여자형사」란 영예를 안은것.

1m68㎝의 헌칠한 키에 단정한용모로 교육 첫날부터「미녀형사」란 소리를들은 朴형사는 교육수료증을 받아들고「이제야 진짜 경찰관이 된 기분이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여자형사」는 朴형사의 고등학교때부터의 꿈이었다. 2남4녀중 막내이면서도 남달리 쾌활하고 명랑한 그는 여자가 하기힘든 일을해보고 싶었다.



光州사레지오女高를 졸업한 직후인 지난해6월 부모몰래 여경모집 시험을 치렀다. 합격된후 부모의호된 꾸지람을 각오했으나 뜻밖에도 「손가락질 받는 경찰관은 되지말라」며 합격을 축하해주었다.

2개월간의 경찰학교교육을 마치고 지난해 12월8일 서울泰陵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배치됐다. 민원실근무는 女高때의 꿈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시민을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선 보람도있었지만 하루종일 앉아지내는게 불만이었다.

지난8월 생각지도않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시경이 여자수사요원을 선발한다는 소식이었다. 다행히 朴순경의 자질을 아는 상관은 그를 선뜻 추천해주었다.

朴순경은 1주일간 수사이론, 컴퓨터조회, 피의자신문요령, 검정조서작성요령, 지능범수사요령, 범의 현장감식등 수사에 필요한 교육을 대충받았다. 교육자체가 성격에 맞아선지 그렇게 재미있을수가 없었다. 교육을 받는동안 자신이 현장을 달리고있는 환상에 젖기도했다.

「그러나 환상에서 깨어나면 어딘지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다. 여순경을 수사요원으로 선발한것은 획기적이지만 조사요원으로그역할을 한정한 아쉬움을 떨쳐버릴수 없었던 것이다.

「범죄의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상황에서 수사요원들도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될것같아요. 과학수사도 실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니까요」「미녀형사」에「민완형사」를 겸하고 싶은듯 눈초리가 날카로와진다. 【方[illegible]기자】

韓國人살해犯 比人 사우디, 참수형집행

【제다(사우디)=聯合】 지난 8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장강도범행중 한국인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부상시킨 필리핀人 혜소·세세·아가 10일 참수형에처해졌다고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성이 발표했다.

내무성은 참수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름首都인 타이프에서 금요일 정오기도가끝난뒤 집행되었다고말하고 혜소·세세·아가 지난 5주일동안에 사우디에서 처형당한두번째 필리핀人이라고 덧붙였다.

무단횡단하던 행인 버스치여 2명숨져

11일새벽0시30분께 서울江東區吉洞348의2 앞길에서 길을무단횡단하던 張仁淑씨 (42·고물행상·서울江東區吉洞371의8) 와 車玉子씨 (49·종업원·서울江南區細谷洞171의3) 가 明逸洞쪽으로 달리던 서울5사6280호 신흥교통 21번좌석버스 (운전사 宋[illegible]南·43) 에 치여 그자리에서 숨졌다.

한마을집단 배앓이

【大邱】경북淸道郡[illegible]南面花山1洞에 열이나고 설사를하는 배앓이가 번져 11일 현재 이마을주민 81가구 3백74명중 20가구31명이 앓고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마을 장병국씨 (47) 가 지난 3일부터 고열과 설사로 앓기 시작하면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것. 【新】

섬마을 최고의 날

科學展 첫 大統領賞 국교생 金局炫군·金今淑양

◇대통령상의 金今淑양 (左) 金局炫군。

4개월간「바다의神秘」관찰

"賞金은 實驗器材 구입비로"

11일은 섬마을의 두어린이와 한 이름없는 교사에게 잊을수없는 감격의날이되었다. 15가구70명이 모여사는 작은섬 (駕牛島) 마을에서 올라온 金今淑양 (11) 과 金局炫군 (10) 이 전국과학전에서 형과 누나 수십명 제치고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에 뽑힌것.

대통령상에 뽑힌 金今淑양과 金局炫군은 단 한명의 교사에 전교생이라야 6명뿐인 전남康津郡道岩東국민교분교의 졸업반인 5학년생。국민학교학생이 최고상에 뽑힌것은 33년 전국과학전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들이사는 섬마을은 전남康津에서 뱃길로40분거리에있는 6만5천평남짓한 외딴섬.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바다와 물새만을 벗삼아 살아야 했던 이들에게「과학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지난 81년3월 郭水禮교사 (37) 가 부임하면서다.

하루에 두번씩 들고 나는 밀물과 썰물 현상을 이상히 생각해 왔지만 누구하나 체계적으로 지도해줄 사람이 없었다. 郭교사는 두어린이가 자연시간에 남달리 밀물과썰물현상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한것.

아이들은 지난 4월17일부터 바닷물이 들고 나는 시간과 높이차등을 알아보려 밤낮없이 바다로 나갔고 이를위해 간이 측정기구 (檢潮器) 까지 만들어주었다. 이들해 부모들과 木浦[illegible]까지 여러회 견학도 갔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시간은 정확히 얼마나 될까. 두학생은 4개월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측정한결과 밀·썰물때 걸리는시간은 썰물때가 더 길며 평균 6시간13분이 걸린다는 사실과 밀·썰물이 매일 늦어지는 시간은 달 (月) 의 모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49.9분이고 밀·썰물이 바뀔때 물이 잠시 머무는 시간은 4~15분정도임을 알아냈다.

또 한달에 2번씩 밀·썰물의 차 (潮差) 가 클때와작을때가 있다는사실과 최대와최소의 조차도 알아냈다.

『무척 기뻐요. 새벽1, 2시에 밀·썰물을 보려 깨워주고 함께가시느라 선생님이고생이 많으셨어요. 상금은 학교 과학실험기구를 사는데 보태겠어요』

어린이 그것도 작은 섬마을 어린이치곤 너무 어른스런 답변이었다.

金今淑양은 어업을 하는김국현씨 (43) 와 양화자씨 (43) 의 5남매중 4째, 金局炫군은 김상록씨 (51) 와 노일순씨 (53) 의 6남매중 막내. 【李光榮기자】

선데이 스토리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大統領賞「밀물·썰물 관찰」

제28회科學展 국무총리賞엔 全南工高 朴炳鐵교사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민학교 학생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제28회 과학전에서 영예의 대통령상 (상금2백만원) 은 전남康津郡道岩東국교5학년 金局炫군 (10) 과 金今淑양 (11) 이 공동출품한 지구과학부분의 『밀물과 썰물에관한 우리들의 관찰』(지도교사 郭水禮) 이 차지했다.

전국 과학전에서 학생작품이 대통령상을 탄것은 여섯번이나 있었지만 국민학생이 대통령상을 받은것은처음이다.

전국과학전심사위원회는11일 이밖에 국무총리상 (상금1백만원) 에 전남공고교사 朴炳鐵씨 (32)가 출품한 『[illegible]粒子[illegible]과 [illegible]磁波실험장치 개발활용』을 뽑고 이밖에 특상 (〃일반각30만원, 학생 각10만원) 32점, 우수상 (〃일반각10만원, 학생각5만원) 85점, 특별상26점을 비롯, 입선작 2백81점을 확정 발표했다.

제28회 전국과학전은 오는 14일부터 10월13일까지 한달간 창경원옆 국립과학관전시실에서 일반에게 공개된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같다.

◇特賞 (35점) ◆朴[illegible]錫 李相武(慶北 南河國校)◆朴[illegible] 鄭시내 (慶南 밀주국교)◆李[illegible] 金松沃 金連英 (全南 和順國校) ◆金顯玉(全南 麗水女高) ◆金鍾玉 吳信鍾 (全南 麗川 신흥국교) ◆申李澈 金啓勳(大邱 효신국교) ◆崔[illegible] 朴秀烈 李彦炯 (京畿 安養 신안중) ◆安[illegible]英 崔正美 (全南務安 일로국교) ◆朴永大 申應煥(京畿영진대부국교) ◆金在九 全海晥 李光變 (慶北慶山 용성국교) ◆吳明展 李賢永(서울배화여중) ◆金吉熙 趙炳森(忠北제천중) ◆李芝映 金今玉 朴惠淑 (서울정의여고) ◆鄭炳宇 李圭哲 張雄(全南光州서석국교) ◆呂相奎 (慶北청도 화양국교 교감)崔[illegible]鉉(慶北청도 임호국교교감) ◆辛壽浩 (釜山중앙여고 교사) ◆金湯熙 金明洙(忠北淸州중앙국교교사) ◆李凌熙 李淳穀(慶南하생과학관교육연구사) ◆李瑞李(서울덕성여고교사) ◆[illegible]福燮 辛泳相(全南광양여중교사) ◆鄭次根(慶南단성종고교사)金亨鎬 (〃교감) ◆金鍾遠 (慶南의령지정국교교감)金德姬(〃교사) ◆金孟圭 安國泰 (慶南마산서전국교교사) ◆林吉榮 (全北益山성당중교사) ◆金相一(全南광주서림국교교사)文在昌 (全南조치원 교사)◆鄭憲杓 (忠南연동국교 교사)洪石杓 (忠南연기 금석교〃) ◆閔丙周 金鶴泰(京畿平澤高 교사) ◆林漢九 金利亮 (전남 나주여중교사) ◆金吉男 (全北부안·곰소국교교감) 崔泳熙 (全北부안 교육청 장학사) ◆李政喜 (서울보성고교 교사) ◆張德鎬 李在堅 (慶南 거제오량국교) ◆梁時楠 (全南 光山군松汀면동840) 鄭亮澤 (全南光州 山水동 531의35) ◆吳在煥 (忠北淸州中) ◆金東毅 (忠北淸州시司倉동265의6) ◆鄭榮春 (全南光州시芝山동703의20) 裵正熙 (全南光州시백운동6의2)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01

◇근로자들 民俗體典 근로자의 단결을 강화하고 일할 의욕을 높이며 체력향상을 갖게 해주기위한 제3회 노동문화제 민속체전이 11일 상오 서울 汝矣島고수부지에서 열렸다。이날 민속체전에는 씨름·그네·마라톤등 3가지 종목에 걸쳐 16개 산별노조대표 1천6백여명이 참가, 힘을 겨루었다。

뉴욕↔서울간을 週4回 運航합니다.

6月1日부터 金曜日便 新設!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키워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여러분의 모국 방문을
보다 편리하게 모시기 위해
서울↔뉴욕간 金曜日便을
新設 하였읍니다.
한국으로 가실때는 더욱 편해진
大韓航空을 이용해 주십시요.
정성껏 모시겠읍니다.

*하계운항 스케쥴 안내

*표는 6月1日부터 運航합니다.

KE 007	편명	KE 008
火·木·金*·日	요일	火·木·金*·日
23:55 ↓	뉴욕 (앵카리지)	21:50 ↑
06:30+2	서울	19:00

정성껏 봉사하는 우리 민족의 날개
大韓航空 KAL

예약이나 자세한 문의는 대한항공이나 각 여행사로 해 주십시요

대한항공 ☎ (416) 862-8250
390 BAY ST. SUITE 720.
TORONTO, M5H2Y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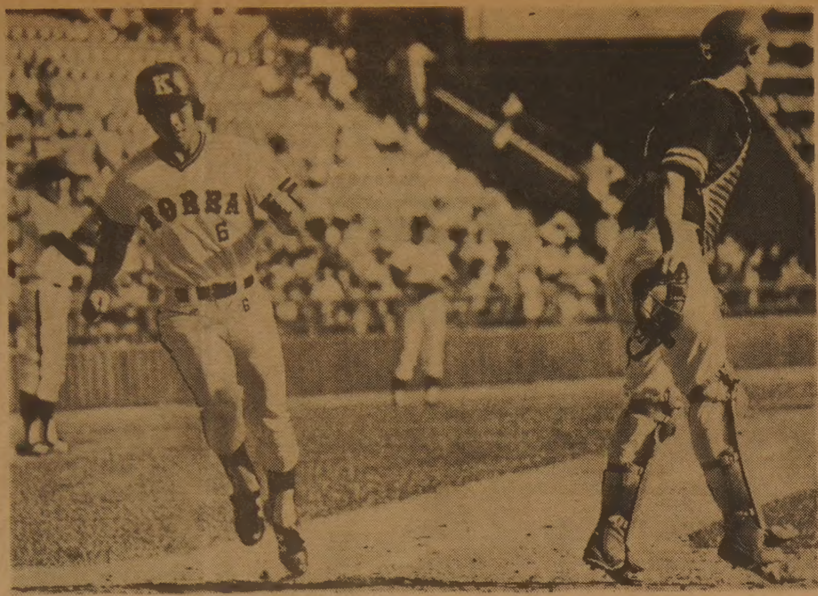
●서울여행사 535-6004 ●신세계여행사 536-2155
●제일여행사 535-2377 ●한국여행사 531-4607

한국、攻守불안속 5勝先占

화끈한맛 없어 "답답"… 加5·1제압

27회 세계野球선수권대회 <제7일>

빈타로 고심하던 한국은 5회말 2死후 연속 3안타로 승기를 잡아 캐나다를 5-1로제압, 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서 5승고지를 선점했다. 한국은 11일 잠실구장서 속행된 대회7일째 경기서 1회말 데드·볼로 나간 3루주자 金在博과 포볼로 나간 1루주자 張孝祚의 더블스틸로 선제1점을 훔쳐내고 5회말 2死후 9번 韓大化、1번 金在博、2번 趙城玉의 3연타로 결승 2점을 얻은후 8회말 柳斗烈이 솔로호머를 날려 캐나다의 추격을 뿌리치고 5승1패를 기록、선두를 고수했다. 한국은 12일 도미니카、13일 濠洲、최종일인 14일 日本과 격돌한다. 도미니카는 이날 서울운동장서 16안타를 퍼부어 6안타의 濠洲를 10-5로 누르고 3승3패를 기록했으며 濠洲는 1승5패로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날 仁川경기선 파나마가 1회말 4개의 2루타와 1개의 3루타를 집중시켜 5점을 거둬들이며 이탈리아에 8-4로 승리했다.



◇2死후 3루타…韓大化홈인 한국과 캐나다의 대전。5회말 2死후 金在博의 중월3루타로 韓大化⑥가 홈인, 한국이 2점째를 올리고있다。

柳斗烈8회 솔로홈런

도미니카 16안타 퍼부어 濠洲격파

한국-캐나다

한국의타선은 여전히부진, 대회 막바지에 이른11일캐나다와의 경기서도 불안을 감추지못했다. 한국은 1회말 선두1번 金在博이 데드볼로, 2사후 4번張孝祚가 포볼로만든 1·3루 찬스에서 캐나다 수비진을 기습, 더블스틸로 선제 1점을 뽑았다. 그러나 캐나다의 우완선발웨스트가드의 역투에 눌려2회까지 한개의 안타도 얻어내지 못했다.

4회말 선두3번 李海昌이 처음 좌전안타를 날렸으나 6번 李頌揆의 병살타로 득점에 실패.

5회말 연속3진으로 투아웃이 된후 9번 韓大化가 우전안타로 비로소 공격의 돌파구를 열었다.

1번 金在博이 적시에 좌중월3루타를, 2번趙城玉이 좌측 파울 라인 바로 안쪽에 떨어지는 행운의 2루타를 날려 한국은 3-0으로 승기를 잡았다.

캐나다는 안타수에서 우세를 보이면서도 朴東洙 金始眞 宣銅烈의 계투에말려 적시타를 날리지못했다. 캐나다는 8회초 한국2루수 鄭求善、3루수 韓大化의 잇딴 범실로얻은 찬스에서 4번만이 좌전적시타를날려 간신히 1점을 만회했다.

병살타와 범타로 부진을보이던 柳斗烈은 8회초 교체멤버로 들어와 8회말 좌월솔로홈런을 날려 한국의 승리를 굳혀주었다.

◇제7일전적

▲잠실

캐나다	000	000	010	1
한국	100	020	11×	5

▲캐나다투수=웨스카드、운라(7회) 포수=다운스 ▲한국투수=朴東洙 金始眞(5회) 宣銅烈(8회) 포수=沈敝元 ▲안타=캐나다8-8한국 ▲홈런=柳斗烈(8회말·한국)

◆서울운

호주	000	001	301	5
도미니카	101	103	22×	10

▲홈런=버크더(7회3점·호주) ▲안타=호주6-16

◆인천

이탈리아	110	000	110	4
파나마	500	002	10×	8

▲홈런=로·비로(1회) 로마노(8회·이상 이탈리아) 카스티요(6회·2점) 오로스코(7회·이상·파나마) ▲안타=이탈리아 11-9 파나마

◇제6일전적(10일)

한국	001	210	000	4
파나마	100	000	100	2

▲한국투수=崔東原 任昊均(9회) ▲포수=沈敝元 ▲파나마투수=비길、베가(4회) 코르도바(9회) ▲포수=테레스 ▲안타=한국4-8파나마

도미니카	400	000	101	6
이탈리아	020	300	000	5

▲홈런=크로스(7회·도미니카) 코르테세(4회·2점·이탈리아) ▲안타=도미니카 9-9 이탈리아

◇각팀 중간전적 (11일현재)

	한국	미국	일본	자유중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도미니카	네덜란드	파나마
한국	★	○2-1		○6-0	×1-2	○5-1			○11-0	○4-2
미국	×1-2	★				×0-1	○14-4	○5-1	○11-3	○7-6
일본			★	○3-2	×2-3	○18-7	○7-1	○6-3		
자유중국	×0-6		×2-3	★	○2-0	○17-11	○11-8			
이탈리아	○2-1		○3-2	×0-2	★	×6-10		×5-6	×11-12	×4-8
캐나다	×1-5	○1-0	×7-18	×11-17	○10-6	★	○7-4	×8-18		
호주		×4-14	×1-7	×8-11		×4-7	★	×5-10	○6-2	
도미니카		×1-5	×3-6		○6-5	○18-8	○10-5	★		×2-3
네덜란드	×0-11	×3-11			○12-11		×2-6		★	○6-5
파나마	×2-4	×6-7			○8-4			○3-2	×5-6	★

朝鮮大 京畿大 仁荷大 成大 4強 진출

大學배구

主戰빠진 仁荷 고전

단신 忠南과 풀세트

朝鮮大 京畿大(이상A조) 仁荷大 成均館大(이상B조)가 제9회 체육부장관기 쟁탈 전국 대학배구대회겸 제5회 우수대학 연맹전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11일 장충 체육관서 벌어진 대회 이틀째 A조경기서 朝鮮大는 기교파세터 鄭龍河를 축으로 姜錫九 金一星등이 맹활약, 忠北大에 제2세트만 접전을 허용하고 3-0으로 이겨 2승을기록, 馬山大를 3-0으로 물리친 京畿大와 예선 선두를 이루고있는 仁荷大는 忠南大에 의외로고전하다가 3-2로 힘겹게 승리, 1승을 기록했다. 이로써 3팀만이 속해있는 B조서 忠南大는 2패로 탈락했고 각각1승씩을올린 仁荷大와 成大가 준결승에 올랐다.

柳重卓 韓壯錫이 국가대표로, 文洛鉉이 간염으로 빠진 仁荷大가 忠南大에 풀세트를 허용한것은 의외였다.

높은 점프와 날카로운 강타를 자랑하는 金相樺과 전 국가대표 李龍蘭, 심한 난조를 보였다.

忠南大는 이날 仁荷大에 무릎을 꿇었지만 끈질긴 후위수비와 단신을 커버하는 다양한 플레이를 보였다.

특히 1m78의 단신 劉孝鍾은 상대의 블로킹을이용하여 밝게 긁어치는 타법과 터치 아웃 공격으로 맹위를 떨쳤으며 劉와 대각으로 선 崔昌峻도 분전했다。

◇제2일전적

▲A조

조선대학 3 (15-5 16-14 15-10) 0 충북대학 (2승) (2패)

경기대학 3 (15-9 15-6 15-5) 0 마산대학 (2승) (2패)

▲B조

인하대학 3 (15-5 15-7 11-15 15-4 13-15) 2 충남대학 (1승) (2패)

세계 그레코로망형 레슬링

李衍益 4회전進出

趙誠日·李相勳 아깝게 판정패

【카토비체(폴란드)=聯】 한국의 李衍益은 10일 폴란드의 카토비체에서 속개된세계 그레코로망 레슬링선수권 대회68kg급 B조3회전에서 中共의 장·롱·이를 판정으로 물리쳤다.

또한 方大斗는 52kg급 B조 1회전서 不戰勝을 거두었다.

한편 57kg급에 출전중인 趙誠日은 A조 1회전에서 헝가리의 이스트반·수스에 4-0으로 판정승했으나 2회전에서는 터키의 세르하르드·카라다그에게 3-1로판정패했다.

李相勳은 82kg급 3회전에서 소련의 티모르·아바자바에게 판정패했다.

吳永世 TKO敗

比 나바레테에

【마닐라(比)=聯】 프로복싱前 WBC(세계권투평의회) 슈퍼·페더급 챔피언인 필리핀의 롤란도·나바레테는 10일 한국의 吳永世(25)와 벌인 10회전 경기에서 8회TKO승을 거두었다.

나바레테의 세계타이틀 재도전 전초전으로 거행된 이경기에서 吳永世는 8회전 종반 나바레테의 예리한 레프트를맞고 다운된뒤 카운트 8에 일어났으나 싸울 의사를 비치지않아 TKO패가 선언됐다.

KBS盃 씨름

東亞大 단체優勝

【大邱】 제11회 KBS배쟁탈 전국장사씨름대회 2일째 대학부단체결승에서 東亞大는 지난해 우승팀嶺南大를 4-3으로꺾고우승을차지했다. 이로써 東亞大는 서울시장기대회 우승에이어 올2관왕을 차지했다.

또 대학부 개인전에서는 仁荷大의 1학년 張志泳이 東亞大의 黃永浩를 2-1로누르고 우승했다.

한편 1백12명의 장사가 출전, 9개조로 나뉘 예선과준결승리그를벌인 장사부 경기에서는 지난해우승자 李俊熙(釜山공동어시장)등 8명이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장사부 8강진출선수 =洪顯旭(현대중공업) 李萬基 李勝三(이상 경남大) 李俊熙 姜奉遠(이상 부산공동어시장) 張志泳(인하대) 崔旭珍(경상대) 金光植(충남대)

실업축구

外銀"최하위"벗었다

슛不發한 韓一銀에 2-1

敗色의大宇 후반에 극적2골…忠義와 비겨

外換銀行이 韓一銀行을 제압하고 최하위를 탈피했다.

外換銀은 11일 孝昌구장서 속행된 실업축구 코리안리그 제35일째경기서 韓一銀을 2-1로 물리쳐 올시즌2번째 승리를 기록, 鐵道廳과 공동17위가 됐다.

外換銀은 전반14분 張基文이 페널티에리어 우측외곽서 프리킥, 볼이 그대로 골인되어 선제점을 빼앗으며 19분 韓一銀 朴胃安의 핸들링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張基文이 성공시켜 2-0으로리드를 잡았다.

韓一銀은 전후반 16개의 슈팅을 날리며 반격을 시도했으나 득점을 올리지못하다가 경기종료 1분전 外換銀張基文의 핸들링반칙으로 페널티킥을얻어 朴胃安이 1점을만회했다.

◇外換銀 오랜만의 猛攻 外換銀行과 韓一銀行의 대결。최하위에있던 外換銀은 2-1로이겨 오욕을 씻었다。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밤9시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오전)토,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심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전11:0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7:30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현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복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쿠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가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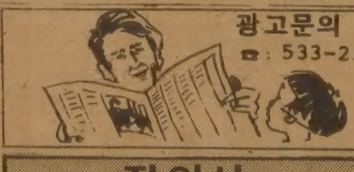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광고문의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웨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천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신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교인학생으로서 주5일 하루3시간씩 집에 와서 ◉내방 바람. French, 한국어, 피아노, 미술과목 가르쳐 주실분. (하루 한과목 지도도 괜찮음) 2194 Bloor St. W.(Runnymede & Bloor)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Rd. (OakWood Ave×Davenport)
전화 : 656-3020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Mon.-Fri. 11:00a.m.-3:00p.m.
전화 : 368-2470 (after 2:00 p.m.)

꽃집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내방바람)
2194 Bloor St. W.(Runnymede & Bloor)

Hamburger 식당 HELPER 구함.(남자분 환영)
영어대화 필수, FULL TIME.
5608 YONGE ST. 내방바람. (HOT CORNER)

유경험자 Helper구함(남자분)
Grocery Store(채소 & 과일)
전화 : 597-1115(오전 8-10시사이)

파타임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537-0432

유경험자 Cashier 구함.
Full Time 또는 Part Time.
Queen & Pape. 전화 : 463-6334

여권

성명: 김봉애, 여권번호: NO.1342408(대한민국 여권)
분실장소: 1982년 9월14일 Store안에서
전화 : 921-4466 또는 291-0117

하숙

하숙 원합니다. 하루 저녁식사만 해주시면됨.
전화 : 533-0668 Mr. 신(6시이후 전화바람)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조흥은행	363-3448

매매

★Bargain Variety
현대식 Plaza(at Oshawa Main St.) 2,400 sq.ft.
주매상 : $7,000. 장래전망 최고.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자함. $59,000+stock.
★ High Volume Convenience Store.
성업중이며 매우 바쁜거리에 있는 Plaza안에 있음.(Oshawa)
주인이 새로운 Business를 하기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팔고자 함.
$60,000+stock. 6년 리스

Bagot Realty Inc. (Realtor)
Phone : 1-579-4010
after hours Frank Magnus 683-8154

Brick Building + Variety & Grocery
아스킹 : $129,900.(West Toronto)
A.E.LePAGE
Chaherine Ryerson
전화:537-3431

서울집 식당 매매함. 관심 있으신 분 내방바람.
좋은 값으로 양도코저함.
615 Bloor St. W.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앞으로 전망좋은 휜취×웨스턴 멀안에 있는 쌍방울 메리야스 가게(애기옷, 베드스프레드, 담요, 카페트)를 매매코저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애기옷 0-6살까지〉 3467 Finch West Mall
전화 : 746-3458 Mrs.윤

카메라 상점 급매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Mr.김

Smoke & Gift Shop
for Sale

High Sales Volume &
Best Lottery Ticket Sales place
No Competition &
No Grocery Prime Plaza in Scarborough.

For More Information & Appointment
Call : 751-5176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옵션 5년(Arbitr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발전성 있는 가게임. 현재 주매상 : $3,000
리스 : 5년 + 5년
전화 : 466-7698 Mr. Lee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Variety & Gift Shop.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발전성 있는 위치. 매상 증가 일로에 있음. 리스 : 5년+옵션 3년.주소 : 290 Eglinton Ave. W.

Variety Store, no grocery
3447 St.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 265-9000

새 Store 양도(New Plaza) 전망좋은 가게를 사정에 의하여 양도 코져함. 새로 Set up 하실분.
전화 : 532-7421 Mr.서

Bloor West Village
▲Coffee Shop. 전망이 대단히 기대됨.
High Rise 건물들이 옆에 있음. 아스킹 : $29,000
▲Varity & Gift & 6 Video Machines
아스킹 : $34,000. 머신으로부터 월수입 $3,000
▲7 Unit Apt.
Gross : $25,400. 아스킹 : $220,000
▲Special Spacious Town House
3 Bed Rm. Balcony, Storage
Mortgage : $24,000 at 10%
Call : Doris Bruda 763-5555
High Park Area
▲Modern Full Equipped 49 Seats
식당+Two 6 Rooms Apt.
최고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음. 아스킹 : $49,500
Call : Goe Zammit 763-5555
Cholkan Real Estate

Carpet Cleaning Business for Sale
순 월수입(Net Income/M.) $4,000(Brampton 지역)
아스킹 : $20,000. 전화 : 791-3570(Mr. Yosuke)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5,000〉
아스킹 : 50,000+스탁. 렌트 : $900(2층에 4베드룸 포함)
4975 Yonge St. (세파드×영)

Tuck-Shop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2년+5년
연락처 : 272-4568. 270-1371

Store 장비 일절 급매(사용하던것)
오전중 문의바람.
전화 : 221-6544 (Mr. 안)

Variety & Grocery Store
주매상 : $5,700. 아스킹 : $57,000+스탁
리스 : 5년+옵션 5년.(10개월전에 Open한 Store로서 앞으로 전망이 크게 기대됨)
2643 Eglinton Ave. E.

2층에 방2개 달린 코너 독채가게
주매상 : $3,500
주 소 : 1574 Kingston Rd.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 Lawrence & Eglinton area plaza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 759-8658(R) 781-6774(B)

St. Catharines downtown 지역
건물(위층 APT. 살림집) 및 Business 팝니다.
현주매상 : $3,600이상 Good Location
계속 매상 늘고 있는 새로 Set up한 Store
Near G.M.Plant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
전화 : 1-685-5863

집렌트

4 Bed Room 집 전체를 싸게 세놓읍니다.
(Brampton)
전화 : 247-3216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650/M.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5일에 $13로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 수 있읍니다.

아파트렌트

독신자 방세놓읍니다.(단기 체류도 환영)
또한 Part Time 봉제작업하실분 환영.
상세문의 6시이후 530-1046

방세 놓읍니다.(곧 입주가능)
2-Bed Room(Keele St. & St. Clair) 1-Bed Room
(Dundas & George St.) 전화 : 226-2077, 763-3289

독신녀 방세 놓음(부엌 같이 사용)
전화 : 653-0771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한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의분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진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순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illegible]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화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광고문의 ☎ : 533-2361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병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수일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선물센타

거북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너도 나도, 어린이도 어른도, 아내도 남편도,

다같이 걸읍시다

한인양로원건립모금을 위한

WALK-A-THON (보행마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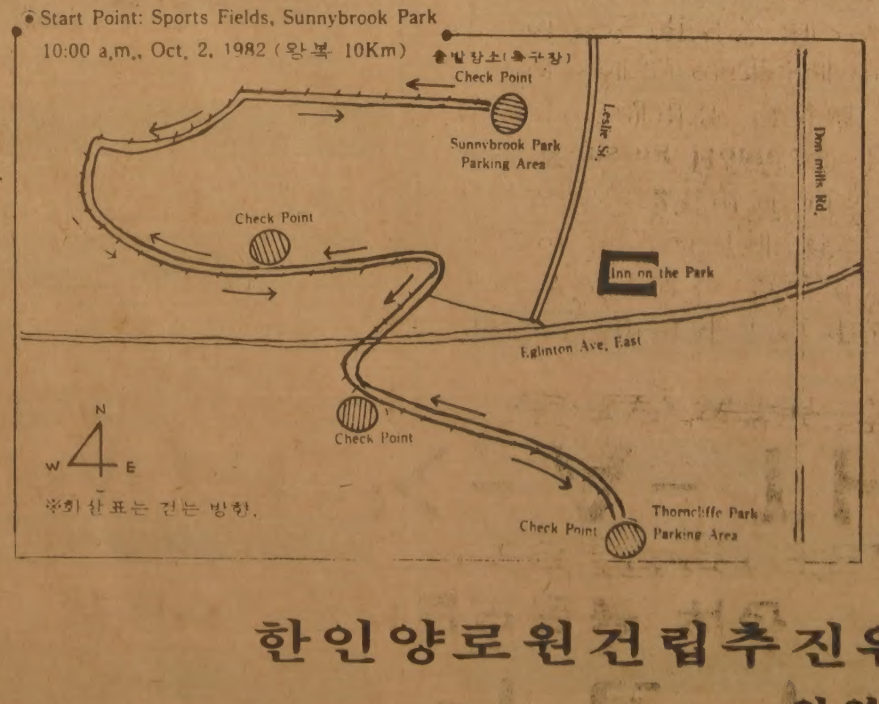
불과 10여년 이민역사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성장한 한인사회는 "우리부모는 우리가모신다"는 전통적인 우리의 미덕을 이 사회에 보여주는 과업에 착수할 때를 맞았읍니다.

현재 토론토에는 2천명에 달하는 노인분들이 있고 이중 상당수가 여러 너싱홈(Nursing Home)에서 음식과 언어에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이런곳에서 여생을 보낼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읍니까? 이같은 현실을 해결하는방법으로 저희들은 한인전용 양로원 건립을 계획하고 모금을 위해 보행마라톤(WALK—A—THON)을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면 큰 도움되겠읍니다.

△때 : 1982년10월2일(토요일) 아침9시30분
△곳 : 써니부룩공원축구장 (EGLINTON×LESLIE ST.)
△참가신청배부처 : (1)양로원건립위원회 이학현 463—6334 · 최상수 656—0867
나상선 851—5735 · 송인문 881—5590
(2)한인YMCA : 536-1166(MR. KIM)
(3)한국일보사 : 533—2361
(4)민중신문 : 537-3473
(5)코리언저널 : 757-8000

대회고문 : 이규현 주 캐나다 한국대사 ·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
HON. L. GROSSMAN 온타리오주 보건부장관
HON. F. DREA 온타리오주 사회부장관
대 회 장 : 박인순 토론토 한인회장
진행위원장 : 천중환 한인양로원 건립 위원장
진행위원 : 김창열 차선겸 유영갑(R) 송인문 조덕남 최동주 나상선
강준남 한승권 이학현 유영갑 박경택 김명규 이병권 나영삼
유영린 심태섭 송남성 신영식 최상수 김인환 장연탁 김이열
후원단체 : 토론토총영사관 · 한인회 · 한국노년회 · 캐나다한국외환은행 ·
(무순) 온타리오 실업인협회 · 재캐나다 대한체육회 · 코리아타운번영회 ·
동우회 · 한인YMCA 와이즈맨클럽 · 라이온즈클럽 · 간호협회 ·
한인교역자회 · 무역인협회 · 한인골프협회 · 백커경영인협회 ·
맥스경영인협회 · 한일은행 · 한인신용조합 · 대한부인회 · 조흥은행 ·
한국일보 · 민중신문 · 코리안저널



= 보행마라톤 참가법 =

1. 소정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후 이웃, 친지, 친척, 어린학생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본 워커톤의 취지를 설명한다.
2. 총 보행거리 10Km중 걷는 거리 Km당 얼마의 현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 Km당 현금을 약정받는다.
3. 걷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4. 약정자의 성함과 주소, 전화번호, Km당 약정액을 신청서 용지에 있는 양식 속에 기입한다.
5. 가능한한 많은 분들로부터 약정액을 받아 기입하도록 한다.
6. 10월2일 써니부룩·파에 오전 9시30분까지 나와 약정액이 기입된 신청등록 용지를 제출하고 대회 등록을 한다음 예정된 워커톤 코스에 따라 걷는다.
7. 확인 도장을 받으면서 10Km를 다 걷고 나면 최후 확인도장을 받는다.
8. 10Km를 다 걷지 못하고 중도에 그치더라도 중간 검문소에서 그때까지 걸은 거리에 대한 확인 도장을 받는다.
9. 걷는 것이 끝난 후에는 기부금 약정자에게 연락하여 자기가 걸은 거리만큼의 약정 금액을 계산하여 받고 총액을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 회계:
   Treasurer,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c/o Mr. Hak Hyun Lee, 900 Queen St. E.
   Toronto, Ont. M4M 1J3 앞으로 10월16일까지 보내준다.
   "예"
   약정금이 1불이고 워커톤 대회 참가자가 걸은 거리가 8Km일 경우 8Km × $1.00=$8. 즉 $8을 그 기부자로부터 받으면 된다.
10. 본 위원회는 가장 많이 모금하신분 5명과 가장 많은 기부자(Sponsor)를 가진분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11. 점심은 각자가 지참, 음료수는 본위원회에서 제공.

*** 상품 : 10 스피드자전거 (10대)**
(5대→최고의 모금 실적을 올리신 분)
5대→스폰서를 가장 많이 받은사람)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대회장 박 인순
위원장 천 중환 · 이사장 김 명규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6042 Paddle Road, Mississauga, Ontario Phone : (416)826—6664